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9 1982년 11월 2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November 25, 1982

NOV 2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5F·F-5E전투기 생산

한국. 85년까지 년간 24대씩

LA타임즈 보도, 미 노스롭사와 공동생산 협정

〈LA지사〉 한국은 미·노스롭항공사와 전투기공동생산 협정을 체결, 오는 85년까지 연간 24대의 전투기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22일자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노스롭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생산될 전투기종은 F-5F와 F-5E이며, 1대당 평균생산가격은 7백6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2대의 F-5F전투기를 KAL에서 조립, 공군에 인도했으며, 오는 86년까지 총68대의 전투기가 현지에서 조립생산된다고 미고위 관리가 밝혔다.

대한항공의 F-5F기 부품 자체생산율은 현재 20%이며, 86년에는 75%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LA타임스는 덧붙였다.

한편 미군사소식통은 한국은 미국의 허가 아래 M-16소총을 비롯, 발칸포, 1백5밀리와 1백55밀리 곡사포, 대전차 로케트포, 지대지미사일, 고속순양함등 연간 수억달러상당의 병기를 자체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득구조의금 게이트웨이교회

게이트웨이·코뮤니티교회의 최규흘씨등 한국인신자 일동(태비수목사 담임)은 권투선수 김득구선수의 조의금으로 97달러를 모아 24일 본〈토론토 한국일보〉사에 기탁했다.

노던 텔레콤공장 신설

대한전기와 통신장비 계약

(토론토23일=연합)캐나다의 최대 전기통신장비 제조회사인 노던·텔레콤·캐나다사는 한국의 대한전기통신(대우계열)과 디지틀·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후, 통신장비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위니펙에 2천5백만달러짜리 공장을 신설했다.

그로브·앤드·메일지에 의하면, 노던·텔레콤사는 또한 위니펙지역의 종업원수를 340명에서 5백명으로 증원했다.

노던·텔레콤·캐나다사의 자회사인 노던·텔레콤·인터내쇼날사는 11월초 추가로 2천만달러 상당의 디지틀·통신기체를 대한전기통신에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노던·텔레콤사는 대한전기통신과 6천만달러 상당의 판매계약을 맺었다.

政治局員 키릴렌코 건강상이유 물러나

蘇권력층 異動

〈모스크바 〉 소련공산당은 22일 그간 은퇴및 축출설이 나돌던 안드레이·키릴렌코가 정치국으로부터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올해 76세의 키릴렌코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것이라고 밝히고 공석이된 키릴렌코의 자리는 아제바이젠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 게이더·A·알리예프가 격상, 정치국후보위원 중에서 정위원을 선임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서거이후 12일만에 모임을 가졌다고 발표했는데 후계자로 선출된 유리·안드로포프(68)는 22일 특히 경제문제에관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호네트전투기 성능 불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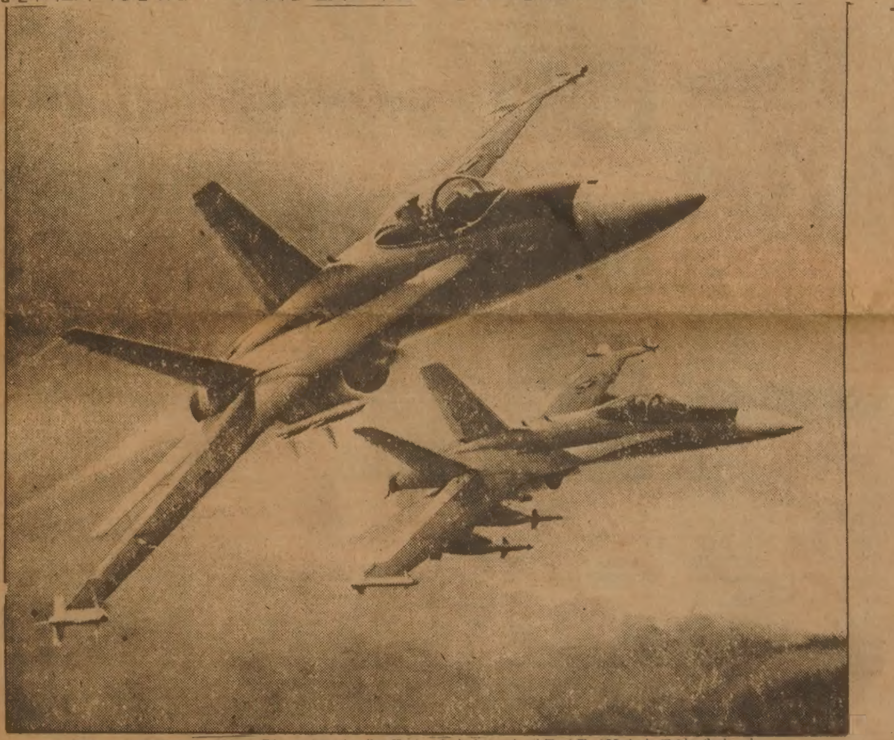
캐나다 이미 138대 구입계약

(워싱톤)오는 12월8일 프랭크·카루시 미국방차관은 FA-18 "호네트"기를 공격용전투기로서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최종승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캐나다는 "호네트"기 138대를 구입 계약, 지난달 이미 2대를 인수했다.

그러나 호네트기의 장래는 극히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지난 9월하순과 10월초순에 걸쳐 미해군에 의해 U.S.S.콘스탈레이숀호상에서 실시된 성능실험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억달러 규모의 FA-18계획의 장래는 극히 유동적이며, 캐나다항공우주산업과의 계약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장래가 불확실한 미국의 FA-18 "호네트"전투기. 캐나다는 이 전투기를 138대나 구입 계약, 지난달 이미 2대를 인수 받았다.

教皇은 마피아에 온건했다

시실리 방문, 노골적公開비난 삼가

〈팔레르모, 시실리 〉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20일부터 이틀간 시실리를 방문, 범죄조직 마피아의 야만적인 행위를 비난했다.

20일 교황의 비난발언이 있기 불과 수시간전 이곳에 본거지를 둔 마피아의 요원들은 4명을 또 사살, 금년들어 총1백30명을 희생시켰다.

교황은 마약거래를 둘러싼 전면적인 갱전쟁을 일으켜온 마피아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비인간적인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황은 이틀간의 시실리방문중 각지에서 13차례의 강론을 하면서 마피아를 많은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갖게하는 범죄조직이라고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비난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을 놀라게했다.

이곳 관리들은 팔레르모와 인근주변에서만 지금까지 총 1백24명이 마피아때문에 사망·실종됐으며 금년들어 마피아에 희생된 사망자수는 총1백3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실리에서는 범죄소탕에 앞장섰던 카를로·알베르토·달라·치에사 장군과 부인이 경호원과함께 지난9월 마피아에의해 암살당한뒤부터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계에 퍼진 헤로인의 약3분의1은 마피아에 의해 공급됐으며 그중80%는 미국에서 거래됐다. 그리고 헤로인 암거래로 시실리에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 6억5천만달러에 달한다는것.

따라서 시실리캐톨릭교회는 팔레르몬의 대주교인 살바토레·파팔라르도추기경의 지도아래 반마피아운동을 전개해오고있다.

그러므로 교황의 시실리 방문은 파팔라르도추기경의 반마피아운동을 지원하고 5백명의 시실리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위한것이었다.

하지만 교황의 마피아에 대한 자세는 온전했다.

많은 시실리인들은 교황의 모터케이드가 고카를론장군부부의 피살지점을 잠깐 거쳐지나가기를 원했으나 통과하지도 않았을뿐아니라 고카를론장군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파팔라르도추기경측근소식통에 따르면 바티칸은 심사숙고끝에 시실리를 조직범죄의 온상이라고 지적하지 않도록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는것.

시실리인들은 국내서나 해외에서나 어디에서든 마피아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것을 불명예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이다.

" 마약거래를 둘러싼 갱戰爭은 人間의 존엄성 훼손하는 행위"

▲시실리를 방문한 교황 요한바오로2세. 골치거리인 마피아배척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주민들은 마피아에 대한 교황의 태도가 의외로 온전한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팔레르모, 시실리 〉

라우카, 나치전범혐의 부인

침묵깨고 성명서 발표, 추방령 항소

나치전범혐의로 서독추방을 기다리는 캐나다시민 헬뮤트·라우카(74)씨는 "본인은 나치살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론토교도소에 수감중인 라우카씨는 22일 성명을 발표, "나치비밀경찰 제3소대(Third Reich) 근무시절이나, 어느때라도 유태인학살과 관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우카씨는 지난6월 연방경찰(RCMP)에 의해 월로데일에 있는 자기집에서 체포돼, 11월4일 온타리오주 대법원에서 서독추방령을 받았다. 캐나다역사상 최초의 시민추방령이된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라우카씨가 나치전범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서독에서 전범재판을 받기위해 범인을 인도한다"고 판결했다.

라우카씨가 추방되기에 앞서 22일 윌리암·파카변호사는 온타리오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라우카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장으로된 공개서한에서 라우카씨는 자신의 재판과정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보고 놀랐다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라우카씨는 이 재판의 영향이 자기 친구들에게도 미쳐 개인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나는 이 재판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말고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기간중 아무말도 하지 않았던 라우카씨는, 2차대전후 49년 12월까지 미군교도소에 수감됐었으나, 이미 비전범자로 분리되 풀려나왔다.

라우카씨는 "캐나다로 이민올 당시나 지금까지 거주하는 동안은 여권에 본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우카씨를 기소한 크리스·아메레이싱검사는 "너무 늦었다. 재판중에 아무소리도 않하던 라우카가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이제와서 부인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라우카씨의 추방 항소재판은 온타리오 항소법원에서 5심제로 열린다.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란콤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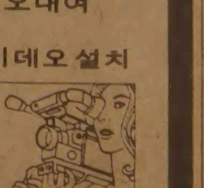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출발일자
11월25일(목)
12월 5 일(일)
12월16일(목)
12월19일(일)
12월30일(목)
자유귀환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 293-9970
IATA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노·소세대간 접근시도

노년회,「젊은이들과의 대화」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격이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격으로서 서로 동반해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지난20일 온타리오교육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 주최로 열린 〈젊은이들과의 대화〉강좌의 골자이다.

이날 첫번째 연사로 나온 노년회 이처관이사는 "노인과 젊은이의 세대차는 서로 협조하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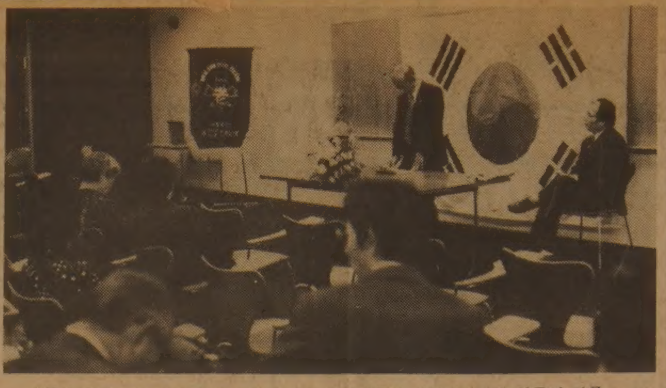
젊은이를 대표한 대학생 동창회 윤주석회장은 "노인들은 젊은이의 행동을 나무라기에 앞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은 한창시절 집을 뛰쳐나와 기숙사, 아파트를 전전했으나, 결국은 가정이 그리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하면서, "결혼, 진학등에 자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박희민목사는 "여기에 나온 젊은이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출생한 우리의 2세와 이민자 그룹인 1세들의 완충지대인 1.5세"라면서 "노인들이나, 이민그룹은 얼마후에는 말도 통하지 않을 2세들과의 대화를 캐나다와 한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1.5세를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석 노년회 이사는 "젊은이나 자라나는 2세는 한국인의 긍지를 잊지 말라"면서 "미래를 지니고 사는 젊은이가 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인대학생회 대표로 나온 정태교군은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이같은 모임이 자주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층과의 대화로 아름답고 품위있는 우리사회와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동방예의지국의 참본을 캐나다사회에 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이 모임에 50여명의 노인회원들이 참석, 연사의 말을 경청한데 비해 젊은이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20일 온타리오교육회관에 모인 50여 노년회원들이 이처관이사의 강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측끝이 사회자 박희민목사

박희민목사 새저서

「신앙과 생활」,「월요일아침에」

「2분간의 명상」,「성숙에로의 시도」,「성장하는 생활」,「4계절의 설교」,「교회와 사회사이」등 과거 수년래 5권의 설교집, 종교수상집을 저술, 출간한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민목사(본사 논설위원)가 이번에 다시 2권의 책 「신앙과 생활」(설교집), 「월요일 아침에」(수상집)를 서울의 보이스사(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생명력이 있는 설교는 성공적인 목회의 으뜸가는 비결………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고 머리말에서 언급한 박목사는 저서 「신앙과 생활」에 "복된소식을 전하는 교회", "성서의 지도자상"등 18편의 지상설교를 담았다.

수상집 「월요일 아침에」에는 1부 "새 역사의 장을 펼치자"에 26편, 2부 "여기 저기서 쓴 낙서들"에 38편 및 권두수상까지 모두 65편의 신앙및 생활수상들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 박목사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학력 : 숭실대학 사학과및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프린스톤신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토론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경력 : 이디오피아 선교사, 뉴욕 롱·아일랜드교회 목사 시무, 현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겸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장.

결 혼 축 하

신랑: 정태조군(성창순여사 3남)
신부: 임경희양(임용규씨 4녀)
때: 82년 12월11일(토) 정오
곳: 한인(연합)교회
(69 William St, Weston, Ont.)
주례: 반병섭목사
피로연: 동교회 친교실

서울시 인구밀집현상 여전

㎢당 13,836명꼴

(서울24일=연합)평방킬로미터당 13,836명(81년말 현재)이라는 인구 밀집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은, 전국 평균인 평방킬로미터당 391명보다 35.4배나 높은 인구밀도를 기록했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61.3%가 자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자동차수의 43%인 227,000대로, 시민 37.9명에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국의 전화기중 40%인 1,140,113대가 서울에 집중, 7.6명당 1대꼴로 집계되었다.

망년파티 호남향우회

호남향우회(회장 장영대) 연말파티가 12월18일(토) 하오7시 Ukranian센터(297 College St.×Spadina)에서 열린다.

특별출연으로 송대관씨의 노래와 권순근악단의 기악이 있다. 회비 $25.

연락처: 651-8835(장영대)

양재원군 10학년 최우수상

지난 19일 리사이드·하이스쿨(이스트·욕소재)의 37회 졸업식에서 교포학생 양재원군이 10학년 최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 상을 받았다.

양우택씨의 외아들인 재원군은 8과목 평균 94점을 얻어 이날 각학급 최우수학생 1명에서 수여하는 General Proficiency Award를 수상했다.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이날 식장에서 Junior Music Award상도 받은 재원군은 9학년때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었다.

교 민 동 정

◆조재숙(비지네스)= 파티의 계절을 맞아, 파티용 샌드위치를 마련해주는 교민업체가 생겼다.

Honey Home Bake Shop을 경영하고 있는 조각가 장연탁씨의 부인 조재숙씨는, 지금까지 해오던 결혼,회갑, 생일등 각종 케익이외에 파티용 샌드위치 트레이를 주문받고 있다.

전화번호는 961-9780(B), 536-1908(R) Mrs. 장.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케네디大統領 암살19주기

▲고존F·케네디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저격암살당한지 19년이 된 22일 알링턴국립묘지에 있는 고인의 묘를 찾은 에드워드·케네디연방상원의원과 로버트·케네디의 딸 로리가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앞서 화환을 바친 특전대협회회장 조·세이어(오른쪽)와 플로이드·톰슨등 퇴역군지휘관들이 뒤에 서 있다. 〈알링턴-AP〉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美女와 사나이 〈116〉

29분의 1 ㉑

용달차 운전사앞에 한기수등 23명이…

『어떻게 그 애를 아십니까?』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름만알고 있다뿐이지. 이옥자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입니다.』

『아, 그런가요. 나이는 몇살이나 됐나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아마 열[illegible] 여덟쯤 됐을 겁니다.』

『헌데 왜 그애를 내보냈지요?』

『글쎄요.』

명석한 한기수의 두뇌가 재빨리 회전했다.

『댁에는 얼마나 있었읍니까?』

『한2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보냈지요?』

『난 집안일은 잘 모릅니다. 아내가 알아서 처리하지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을 만났다면서 들어보지 않았읍니까?』

『그 애가 지금 어디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차는 어느 새 센터의 앞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0여명쯤 되었다. 그들은 무대위에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한기수는 강당처럼 생긴 그곳으로 들어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쪽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그들은 29분의 1을 찾기위해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해외에 나간 사람들을 제쳐놓고나니 모두 23명이었다.

무대에서 조금 떨어진 아래에는 몇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들중 두 사람은 박스를 판 슈퍼마킷 주인과 용달차 운전사였다.

朴 男 그림

무대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서 있었다.

슈퍼마킷 주인과 용달차 운전사는 그들을 몇번이고 훑어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세히 관찰해봐요.』

대머리 본부장이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없는데요.』

한참 후 용달차 운전사가 먼저 머리를 저었다.

『없읍니다.』

슈퍼마킷 주인도 따라 말했다.

『다시 한번 봐요. 옷이 바뀌면 사람도 달라보일지 모르니까.』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머리를 흔들었다.

『없읍니다.』

『제기랄.』

대머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수사요원들은 맥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것이다.

『수고들하셨읍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반장이 무대를 향해 소리치자 남자들은 각양각색의 표정을 지으면서 무대에서 내려와 밖으로 사라졌다.

토론토·스타지 〈놀라운 10대〉특집

이정태군등 소개

토론토·스타지는 지난20일 토요일자 신문에서 한국계의 이정태(Albert Lee)군등 10대에 이미 각 방면에서 상당한 경력과 업적을 쌓은 토론토의 8명을 "놀라운 10대들"(Super Kids)란 타이틀로 다루었다.

수퍼·키즈로 뽑힌 10대중에는 전국과학전에서 수년간 최고상을 차지해 온 이군이외에, 첼로연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프라·하노이양, 수영계의 조슬린·뮈르양, 작가 제일린·부차트양, 스케이팅의 바바라·버틀러양, 학교활동에서 뛰어난 제임즈·로드군, 다이빙의 제니퍼·맥아론양, 배우겸 모델인 크리스·메익피스군등이다. 이들 8명중 3명에 관해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도 이정태군

▲과학도 이정태군(17세)

이정태군은 현재 에토비콕의 빈센트·메시·컬리지엣 11학년학생으로 지난봄 캐나다 전국 과학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출품작은 「Scanning Slectron Memory」. 웬만한 도서관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2평방인치 공간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7년전에 이민온 이군은 장래 토론토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 전자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첼리스트 오프라·하노이양

▲첼리스트 오프라·하노이양(17세)

지난4월 뉴욕 콘서트·아더스츠·길드의 국제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오프라양은 지난달 자신의 3번째 취입음반인 〈첼로·앙코르〉를 내놓았다.

12월에 뉴욕 유스심포니와 카네기홀에서 협연및 데뷰 독주회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72회의 연주회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

이스라엘 태생에 아름답고 성숙한 용모의 오프라양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와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

◆작가 제일린·부차트양

▲작가 제일린·부차트(17세)

지난11월 제1회 영·케네디언작가상을 수상한 제일린양. 600여 응모작중에서 선정된 그녀의 작품 〈그림자속의 여행〉(Journey Through A Shadow)은 차동차사고로 부모를 잃은 10대 소년의 고독과 이질감을 다루었다. 3천달러의 상품을 안겨준 이 작품은, 내년봄 Mc Clwlland & Steward and Bantam Books회사 계통인 Seal Books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다.

장래에는 의사가 될 꿈을 안고 있다.

복싱보다

더 치명적인 경기는?

김득구선수가 경기도중 입은 부상으로 숨져간 뒤 치명적 운동은 중지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기는 복싱도, 하키도, 레슬링도, 등산도 아닌 서양장기의 일종인 브릿지·게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방안에 앉아 장시간 담배연기에 묻혀 복잡한 브릿지·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전강악화는 물론, 생명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세계적 브릿지명수인 새미·케헬라씨와 에틱·머리씨의 공동된 견해이다.

25년이상을 끌어온 이들 두 브릿지게임 명수의 대결은 캐나다의 브릿지를 세계적으로 이끌었으나, 이제 이들은 더이상 대결할 힘은 없다고 한다.

머리씨는 "옛날에는 아무리 오래 브릿지를 해도 지칠줄 몰랐으나, 이제는 몸은 물론 정신집중도 안된다"면서 브릿지게임이 가장 위험한 경기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옳다면, 한국, 일본, 중국인들이 즐기는 바둑도 수명을 단축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감사말씀

어언 3주일이 지났읍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 김 평등심 장례에 참여하시어 편달하여 주신데 개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옳은줄 알면서도, 이제사 지면을 통해 감사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가내 만복이 깃드시고 성원 성취를 빌어 마지 않읍니다.

상주 유일환
동환 드림

초대합니다

삼가, 만추의 계절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조성옥박사님과, 토론토대학 총장 DR. HAM을 연사로 모시고 하루저녁 뜻깊은 시간을 갖고저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대학내에 한국학교 설치를 위하여 모국에서도 적극협력해주고 있지만, 자녀를 가지신 현지의 교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여러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성옥이사장님을 모시게된것은 우리 후원재단의 영광이며, 더욱이 최근 두번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와 높은 교육열에 크게 감명받고 돌아오신 HAM총장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민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오며, 인원이 제한돼 있아오니 빠른시일내에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셔서 예약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982년 11월22일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
후원재단 이사장 윤 여화

때 : 1982년12월1일 오후6시
곳 : 토론토대학 HART HOUSE EAST COMMON ROOM
회 비 : $20.00(1인당) COCKTAIL과 BUFFET, 한국학과 후원성금 포함.
연락처 : 윤여화 621-0323 유형승 928-5343(B) · 284-2448(R) 이광민 274-8889

대각사
법회안내

임술년 삼동결제를 오는 음력 (10월15일) (양력 11월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겠사오니 사부대중께서 두루 참여 있으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대각사
신도회 드림

장소 · 대각사
11 Dawson Ave. Tor.
시간 · 11월30일(양력)화
(음력 10월15일)
저녁 7 시
연락처 · 463-8998

26億 아시아人의 뉴델리잔치

永遠한 전진·平和다짐

아시안게임 畵報

아시아 26억을 밝혀줄 성화가 활활타올랐다. 「永遠한 前進」과 평화를다짐하는 제9회 아시안게임이 19일하오6시반(한국시간) 뉴델리 네루스타디움서 화려한 개막식을마치고 16일간의열전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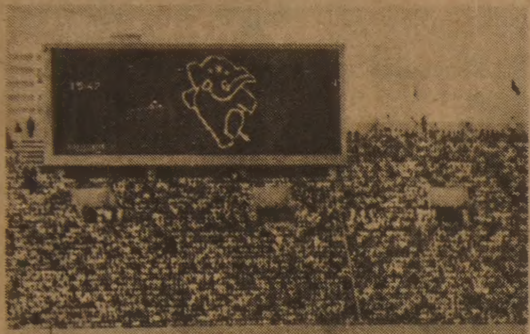
아시안게임 사상 가장많은 33개국 4천5백여선수단이참가한 이번대회서 한국선수단4백6명은 必勝의신념으로 20개종목에 도전하고있다.

한국은 첫날 남자탁구 단체전서 네팔을 5-0으로완파, 순조로운 출발을보였으며 20일부터 본격적인경기에 들어갔다.【사진·한국신문공동취재단·[illegible]=뉴델리 韓】

◇「환영, 닮은 印度민속무용 개회식 공개행사로 펼쳐진 印度 전통민속무용「웰컴 투 압푸(WELCOME TO APPU)」。

◇간디首相 생일축하 한국 국립무용단은 19일 인도수상관저를 방문, 간디수상에게 65회생일을 축하하는 화환을 증정했다.

◇同胞들의 환호 개막식에서 한국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열광하고있다。



◇電光板속의 아기코끼리 개막식서 아기코끼리가 대형 전광판에 아로새겨진 가운데 각국선수단이 그라운드에 도열해있다。

◇採火하는 女首相 간디수상이 네루 스타디움 성화점화대에서 태양열로 성화봉에 채화하고 있다。

◇거구 코끼리가 마스코트 뉴델리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인 코끼리행렬。공중에 아기코끼리가 애드벌룬에 매달려 나부끼고 그라운드에서는 어미코끼리들이 거구를 자랑하고있다。

5분간의

김치 이야기

홍 기 만

먹기위해서 사느냐, 살기위해서 먹느냐는 말이 있다. 닭과 달걀의 우론(愚論)이다.

흔히 사람의 식생활을 5단계로 나눈다. Survival, Recognition, Selection, Preference, Art의 다섯단계다.

첫단계가 생존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고, 둘째단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먹는 것이고, 다음이 가려먹는 선택의 과정을 거쳐 기호성에 의한 식행활은 드디어 식미학(食美学)의 단계까지 이른다.

생존단계가 살기위해 먹는다면, 미학으로까지 승화된 식생활은 먹기위해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법하다.

우리가 상식(常食)하는 김치는 위의 어느 단계에 속할까?

▲구미인의 식생활에서 치즈를 빼어놓을수 없듯이 한국인을 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지난해 이때쯤 〈토론토 한국일보〉에 이렇게 썼었다.

김치는 한국 미각의 전통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김치와 깍두기는 바로 한국의 맛이며, 한국의 맛은 김치와 깍두기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아무리 성대하게 차려놓은 식탁이라 하더라도 김치와 깍뚜기가 빠졌거나, 제맛을 내지 못하면 으레 미각의 허전함을 느끼기 마련인 것이 우리네 한국인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김치가 빚는 고소적(苦笑的)인 일화들… 그런중에서도 역시 으뜸인 것은 몇해전 〈캐너더뉴스〉가 특호활자로 표제를 뽑았던 재미교포의 「김치재판」사건이 아닌가 한다.

한국인 두 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해 왔다. 그 이후로 이상한 냄새가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냄새는 역해갔고, 아파트 관리인은 냄새의 발생처가 한국인 세대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낸다.

임대주는 두 한국인 세대에게 이사하도록 정중히 요구한다. 임대계약일까지는 그럴수 없다고 버틴다. 정중한 요청은 드디어 강요로 변한다. 두 교포세대는 완강히 거부하고 나선다.

문제는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飛火)한다.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이상한 냄새는 차츰 벽과 카페트에 절여 버렸고, 마침내 건물안을 진동시킨 모양이다.

이게 바로 김치라는 「괴물」의 냄새라는 것이다. 얼마마한 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저장했는지 모르지만, 이 「괴물의 냄새」가 충격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게다.

결국 타협이 성립되어 임대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두 교포세대는 자진 이사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김치일화는 최우수 걸작품에서 빼어놓을 수 없음직 하다.

김치이야기가 나오면 내게는 으레 잊혀지지 않는 한 소녀의 모습이 있다.

한국시절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근무한적이 있었다. 부대장은 유머를 많이 구사했고, 그 영향을 받아 장교식당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스했다. 이 부대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애플파이를 "김치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디저트를 무엇으로 드시겠어요?"

웨이트레스인 「앤」이라는 애칭을 가진 예쁘장한 한국소녀가 부대장에게 물었다.

"김치파이로 했으면 좋겠는데, 앤."

익숙한 솜씨의 앤은 잽싸게 주방으로 돌아간다. 앤은 애플파이와 함께 디저트접시 하나를 더 가져왔다.

순간 나는 놀랐다. 나의 눈을 의심했다. 네모 반듯하게 자른 조그만 빈대떡 한점이 올라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게 뭐요? 앤"

"바로 김치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부대장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좀 어색함이 미소에 섞여 보인 것은 김치에 대한 어떤 선입관 때문이었을까?

잠시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부대장은 빈대떡을 말끔히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무척 맛이 좋은데, 앤"

"더 드시겠어요?"

"아― 이제 그만. 땡큐 어게인, 앤"

"유아 웰컴 썰."

생글거리며 웃는 얼굴에 한쪽 볼에만 보조개가 패이는게 퍽 귀엽다.

내게 커피를 따르면서 앤은 중얼거린다.

"이분은 한국사람만 보면 모두 김치로 보이나 보죠? 그래서……."

입을 실쭉한다.

이제는 중년부인이 되었을 「앤」.

위의 얘기는 그저 고소적인 김치일화(逸話)일 뿐이지만, 한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네 식탁에 항시 올라앉는 김치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몸에 해롭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지난 봄의 일이다.

역시 〈토론토 한국일보〉는 주먹만한 활자로 헤드라인을 뽑면서 김치의 「인체유해론」을 보도했었다. 정확히 말하면 소금유해론이다.

미국의학협회와 미국식품의약국의 조사 결과로 밝혀졌으니 그 이상 신빙성있는 조사는 없을 것이다. 원인은 소금이다.

보통사람의 하루 염분섭취 적정량은 200mg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인은 그 20배인 4,000mg을 섭취하고 있으며, 미국인 3천5백만명이 고혈압으로 시달리는 주원인이라는 통계다.

이와같이 다량섭취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소금이 김치 한 접시에 4,500mg―6,000mg이 함유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접시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도 소금에 절였다가 다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야 하는 김치이니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또 이 연구발표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10배이상의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출혈, 심장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인의 10배이면 40,000mg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쯤되면 김치 노이로제 환자가 나올 법도 하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김치를 싱겁게 담그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왜그런지 허전함을 느낀다. 자꾸만 변해가는 인간은 김치의 맛마저도 바꾸어 가야 하고, 전래(伝来)의 미각은 점점 상실되어 갈 것이기에 그런지 모른다.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 밍크
● 폭스
● 세블
● 러큰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2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와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코리언 컵 볼링대회

일 시 : 1982년 12월4일(토) 정오12시
장 소 : PRO 10 PIN BOWL 877 WILSON AVE. (BETWEEN KEELE×DUFFERIN)
종 목 : ●개인전(남·녀) ●부부및 남녀혼합전 ●단체전 6인1조(남4·녀2)
참가비 : 개인전 $7·부부및 혼합전 $10·단체전 $50(6인1조·남4·녀2)
시 상 : 개인전―챔피언(챔피언컵및 애뉴얼 트로피)및 남1·2·3등, 녀 1·2·3등
핸디캡―남 1·2·3·4·5등, 녀 1·2·3등
혼합부부전―우승(우승컵및 애뉴얼트로피)및 2·3등
단체전―우승및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녀 1명)
부 상 : 챔피언―카스테레오(하이파이하우스, 박명호)
여자1등―볼링볼(윌슨프로텐 핀 볼)
부부전1등―전기후라이팬(미도파·장추신)
핸디캡―남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녀1등(쌀1포·동양식품 함태민)
단체전―우승(DY국수 1BOX·DY총판 오기환)

크리스마스 및 송년잔치

일 시 : 1982년 12월18일(토) 저녁7시30분…새벽1시
장 소 : ALBION COMMUNITY CENTRE(1485 ALBION RD×KIPLING AVE.)
회 비 : $20(1인당) 식사·드링크 포함

파―티프로그램

●행운경품 : ◇대형벽시계(영리무역·이영현)
◇다운힐 스키부츠(브랜드스포츠·이건영)
◇고급전화기(TORCH FIRE CANADA·송인문)
◇내셔날전기밥솥(삼복식품·김규석)
◇DY국수 1BOX(DY총판·오기환)
◇라면(동양식품·함태민)
◇카셋테잎(종교서판·김명준)
※이밖에 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음.
●쇼 노래와 경음악(5인조 밴드출연)
●땐스 파―티
※연락처 : (MR. 오)622―0224 (MR. 박)249―3039(경기) (MR. 조)661―3124

주최 : 재캐나다한인볼링협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 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½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배구팀 영예의 우승

9승1패의 호전적

"늙은 선수들이 한팀되어 영예의 우승을 하였다"

지난 20일(토) 에토비콕 West Humber고교에서 개최된 배구협회 주최 제2회 배구시합 성년부에서 본 실업인협회 배구팀은 당당히 우승, 지난봄 처녀출전시 준우승에 이어 9개팀이 참가한 이번 시합에서 최고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시합에서 조기연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실협팀은 총감독에 박남회(전국가대표 농구선수)코치및 주장에 임승철씨가 수고하였으며, 선수는 이춘수, 김풍수, 정상우, 김남원, 송관현, 고광묵, 서정빵, 김태영, 조기연, 박남회, 임승철 제씨로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기까지에는 박남회, 김태영선수의 맹활약과 팀구성및 예비연습을 위한 조기연단장의 극성의 덕이라고 하겠다.

예선전 A조 경기에서 에벤칭메교회와 호남향우회팀을 각각 2:0으로 가볍게 물리친 실협팀은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솔팀과의 대결에서 1:1 무승부, B조 우승팀인 대한교회와의 시합에서 2:0으로 압승, 최종결승전에서 다시 청솔팀과 겨루어 가볍게 2:0으로 물리치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응원석에는 협회의 차회장, 김이사장, 배경락부이사장, 이춘수 총무이사, 서준경이사등 협회 간부들을 비롯, 300여명의 회원들이 목이 쉴 정도로 열렬히 응원을 하였으며, Mrs. 차선겸, Mrs. 김풍수, Mrs. 정상우, Mrs. 서선미등은 선수들을 위하여 김밥과 케익, 드링크등을 제공하였다.

◆작전타임의 순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실협배구팀

◆단장 조기연씨

◆총감독 박남회씨

◆주장 임승철씨

치과 단체보험 추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험의 혜택없이 치아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대가족에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협회는 많은 회원들의 요청도 있고 하여, 금년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시도해 왔다. 이제 협회의 방대한 조직체를 배경으로 한 단체 치과보험이 실현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22일 Crown Life Insurance Co.와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하고, 약 2주후에 상세한 내용의 서면「오퍼」를 가져오기로 하였으므로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업인협회"회원에 한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금으로 실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으로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협회의 일괄 지불문제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회원동정》

회원 김길수씨가 경영하는 Wayside Gallery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동양화전시회」를 갖는다고 한다. 한국의 화백 운파 •이정복옹(75세)의 작품중 「남한산성」등 34점이 전시되는 이 전시회는 많은 교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히 11월28일(일) 12시부터 6시까지는 실업인협회 회원을 위해서 개관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회원의 참관을 바란다고 한다.

11월26일(금)밤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Opening Reception을 갖는다고 한다. 장소는 9185 Yonge St.(HWY7 북쪽)이고, 전화는 886-1667이다.

태권도대회 대성공
후원실협에 감사패

지난 20일(토) 노스욕소재 욕대학의 메켄지강당에서 실협의 단독후원으로 실시된 한인태권도협회(회장 서정길)주최 제5회 재캐나다태권도 시합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30개 도장의 한인사범들과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시합에는 총동원인원 4,000명선을 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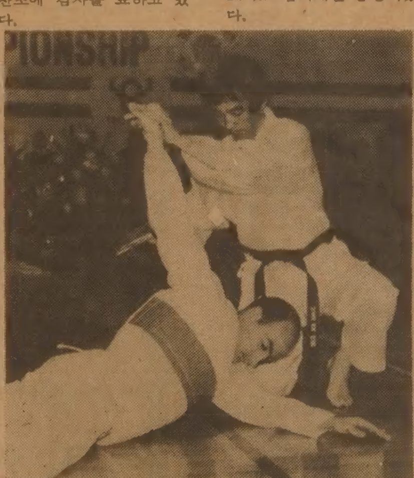
태권도협회의 서정길회장은 "전례없이 성공한 이번 행사의 뒷받침에는 한인교포사회의 주축인 실업인협회의 전적인 후원의 힘으로 우선 사범 자신들이 용기백배하였으니, 실협회원들이 상점에서 애써 팔아준 입장권의 덕이라 하겠다. 실협의 재정적인 후원보다는 정신적인 차원의 후원이 국위선양을 위하여 고전분투하는 우리 사범들에게 큰 용기와 보람을 주었다. 다시한번 실협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였으며, 태권도협회는 이날 시상식에 이어 실업인협회에 우정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태권도입장권 판매기대
일부회원들 찬조금도 송부

본협회 후원으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서정길)이 실시한 선수권대회의 입장권 판매대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실업인협회의 후원사업이 뜻있는 단체의 후원일뿐 아니라, 국위선양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의의를 띠고 있다는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김영대, 조기연, 차선행 제씨를 비롯, 몇몇 회원은 이미 티켓판매뿐 아니라, 별도로 찬조금을 보내왔고, 몇몇 회원들은 티켓은 못 팔았으나, 그 행사를 격려하고 싶다고 $10내지 $30을 동봉해 보내오기도 했다.

협회는 단시일내에 후원사업의 성과를 모아 전달코자 하오니, 회원들께서는 대금과 나머지 「티켓」을 조속히 협회에 보내주시기 바라며, 뜻있는 회원들의 찬조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서정길 회장의 시범

K.B.A. 교환센타

◆10 Feet Open Cooler(선반 3줄, Good Condition)를 가지고 있음. 2Door Pop Cooler와 교환하기를 원함. (766-8849 문남귀)

◆4 Feet Card Rack를 구함. (481-2311 양정우)

상도의문제 심각
협회홍보활동 강화방침

회원, 비회원을 막론하고 소매업을 경영하는 한인들간에 기존업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상점을 신설함으로써 서로 피해를 보면서 적대시하고 지내는 사례가 늘어나 일반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협회상담실을 통해, 또는 항간의 풍문으로 들어오는 이 불미스러운 사례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직 당사자들의 양식과 자각으로써만 시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협회로서는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협회집행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기로 결정, 그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원여러분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방관하지 말고, 이러한 상도의 앙양운동에 적극 협력을 바라고 있다.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젓갈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술안주 · 다이엗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젘 —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 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비데오 게임 머신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데오 게임머신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 해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와 ONTARIO전역
◇신청연락처 : 실협사무실 533-7923

L. L. B. VIDEO AMUSEMENT LTD.

Welcome to K.B.A.

— 금주의 신입회원 —

Black Sea Wholesale Ltd. ——— 정근영 심용웅
Lee's Variety ——— 이무교
Ashbourne Grocery — 권 돈
Centennial Tower Tuck Shop ——— 방성호
Kim's Variety ——— 강찬덕
Shop'n Milk ——— 노연순
York Downs Convenience Store ——— 여광남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獨立기념관 天原木川 유력

天安서 11㎞… 黑城山 100여만坪에
山川수려한 柳寬順열사故鄕 근처

溫祚王이 百濟세웠다는 傳說의 땅

독립 37년만에 온국민과 정부가 함께 건립키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벌이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 예정지를 京釜고속도로변에서가까운 忠南天原郡 木川面 新溪里 黑城山 일대가 가장 유력한곳으로20일 밝혀졌다。安椿生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위원장은 이날 全대통령에게 그동안 후보지로 잡은 14군데중 木川面新溪里 黑城山 일대 1백만여평이 最適地라고보고、全대통령이 이날 이지역 일대를 돌아봄에따라 가장 有力해졌다。건립추진위원회는그동안 天安、淸州、華城등忠淸·京畿지방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역사적인 遺蹟이 많으며국민이 휴식을 즐기면서도 자주독립정신을 느낄수있는 1백여만평대지에 거대한 독립공원을 만들 후보지를 찾기에 부심했었다。

그런데 가장유력한 獨立紀念館건립 후보지로 꼽히고있는 충남 天原郡 木川面 新溪里는 溫祚王이 이곳에서 백제를세웠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유서깊은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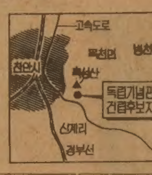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건립입지조건으로 앞으로 참배하기 좋은 교통편리한곳、공원조성에 알맞은 자연환경을 갖추고있는 곳、1백만평이상의 국공유지를 확보할수있는곳을 대상으로 14개지역을 답사한결과 天原郡木川面新溪里 黑城山일대를 가장유력한 후보지로 결정、정부에 이를건의했다。

이에따라 全斗煥대통령이 20일 木川일대를 직접 둘러보기에 이르렀다。

木川의 黑城山일대는 여러가지 점에서 독립기념관후보지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우선 교통을보면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 거리의 天安市로부터 11㎞、柳寬順의사의 고향인 天原郡竝川에서 6㎞밖에 떨어져 있지않다。

黑城山일대에는 최소 1백만평이상의 규모로 예정하고있는 독립기념관부지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너른 임야(최소 1백20만평에서 최대 8백만평)가 널려 있으며 주변자연경관이 수려하기 짝이없다。

이밖에 역사적인 유적들이 근처에 많이 흩어져있다。柳寬順기념관과 不忘碑등이 시오리 남짓거리에 있으며 忠武公 李舜臣장군의 사당인 牙山 顯忠祠도 40리밖에 떨어져 있지않다。뿐만아니라 백제때 쌓은것으로 추정되고있는 둘레2천2백94m에 높이6尺의 黑山城(土城으로당시1천여호가살았을정도로번성했다는 전설이 서려있다)과 壬辰倭亂때 東學軍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가다 관군에게 대패했던 細城山도 바로 독립기념관 후보예정지안에 위치해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주석을지냈던 李東寧선생과 義兵 李範奭장군의 생가등이있는 이곳은 백제때 大麓里 南化里라고 불리기도했다。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후보지로 그동안 서울西大門구치소、중앙청자리、용산미군기지 등을 경기도지역을 답사했으나 1백만평이상의 국공유지 조성을 할수있는 공원조성을 찾지 못했다。【文化部】

14개候補地중 最適
全대통령、헬機답사 山勢·환경등 報告받아

◇全대통령이 독립기념관후보지로 가장 有力한 黑城山頂에서 李振羲문공장관(중앙)과 安椿生건립추진위원장의 안내로 주변일대를 살펴보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0일 상오 독립기념관 건립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忠南天原郡木川面 新溪里 黑城山일대를 돌아봤다。

全대통령은 이날 李振羲문공부장관과 安椿生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안내로 헬리콥터편으로 1백여만평의 건립후보지 일대를 공중시찰한뒤 黑城山頂에내려 입지환경등에 관해 자세한설명을 들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安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14개장소의 후보지를 답사해보았는데 이곳이 교통이나山勢、주변환경등으로보아 제일나은 것같다」는 보고를받고 「造景을 잘하고가꾸면 괜찮을것 같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黑城山頂에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중계소、KBS 淸州방송국중계소및 美8군 TV중계소등에 각각들러 시설을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귀로에 京畿道 安城郡陽城面美山里에 있는 천주교聖域에 들러 水原교구장인 金南洙주교와 미리내성당본당신부겸 성모성심수도회총장 鄭行萬신부의 안내로 聖域공사등에관해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殉敎한 金大建신부의 묘소가있는 미리내聖地를 돌아보고 美山里上村부락의 새마을지도자 趙奎源씨집에서 金주교·鄭신부·李鍾大이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草地조성등 농촌문제등에 관해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上村리 마을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마을 26세대에 각각 송아지 1마리씩을 새마을誠金의 장기융자로 지원해주도록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점심식사를 끝낸뒤 중부지역의 야전군사령부를 예고없이 찾아 주말 근무태세를 돌아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레바논復舊 한국參與 가능

"民間通商 적극 지원하겠다"

安炳璨특파원、할라위經濟·觀光相 회견

【베이루트=安炳璨특파원】할라위 레바논 經濟相겸觀光相은 20일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감명받고있으며 레바논정부는 한국과의 교역증진및 전재복구사업에 한국건설업체들의 참여문제등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정부대표로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한후 이날 귀국한 할라위 경제상겸관광상은 기자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레바논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각국과 레바논민간기업들간의 통상증진을 적극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할라위경제상은 레바논복구건설사업에 한국건설업체들의 진출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레바논정부는 우선관광산업진흥을 위해 호텔의 신축등을 추진중에있으며 기타산업분야의 복구를 위해서도 자유기업주의 원칙아래 산업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그는또 레바논의 전통적인 농산물인 오린지 사과 올리브등의 범람으로 최근들어 농산물시세가 폭락、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이들 농산물을 수입할수 있을는지에 대해 묻고 만약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계기로 한국과 레바논간의교역은 급속히 증진될수도있을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할라위 경제상겸관광상과의 일문일답이다。

—問=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는。

▲答=한국의 경제발전에 감명받고있다。한국과의교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갖고있다。

—問=취임한후 국제교역증진을위한귀하의 정책핵심은。

▲答=레바논은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므로 민간교역증대를 정부는 지원할것이다。

—問=국제교역 증진방안은。

▲答=한국의레바논産농산물수입가능성은없는가。농산물범람으로 전통적레바논농산물、특히 오린지 사과 올리브등이 타격을 받고있다。

—問=알려지기로는이스라엘농산물의 범람이 원인이라는데。

▲答=대단히 고맙다。

—問=레바논복구건설사업의 한국건설업체 진출가능성은。

▲答=나는정부전반적인것을 대변할수없고 내관장분야를 말할수있다。호텔이 파괴되어 觀光부흥대를위해 호텔증설이 필요하다。自由企業시스팀속에 산업별로 실시추진될것이다。

—問=모스코바방문중재전계획에 관련된 접촉이 있었는가。

▲答=본인은조문사절로갔기때문에 경제문제의 접촉은 없었다。

아직 레바논의 정치는 제마옐대통령의 바브다宮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행정력이 아직 유기적인 기능을 회복하지못한 상태에 있기때문이다。

經濟省건물은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지난8년간 보수하지못해 퇴락해있다。西베이루트번화가인 하므라거리에 있는 公報省겸 觀光省은 지금 파괴된 前面을 수리하고 있는중이다。그옆의 소련계 아바그B빌딩(12층)은 모스코나르도니은행은 포격으로 파괴되어 우람한 모습으로 아직 방치되어있다。

한국 1개大隊 경비병력
레바논、聖誕前파견 요청
스웨덴、派兵거부

【워싱턴=聯】레바논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1개대대의 경비병력을 오는 크리스머스전까지 레바논에 파견해줄것을 요청한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곳 외교소식통들은 레바논정부가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할수있는 최소의 단위부대인 1개대대(6백~8백명)의 한국군을 레바논에파견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주둔지와 주둔기간은 지정하지않았다고 말했다。

레바논은 파견부대병력이 지역경비를 위한 개인화기이외에 외부공격을 저지할수있는 최소의방위장비를 휴대해줄것도 아울러 요청했다고 이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번 파병요청을받은 국가중 스웨덴정부는 국내법상의 이유를들어 레바논파병을 거부한것으로 전해졌다。

"産地쌀값 下落…收買 늘려야"
民韓 성명발표

民韓黨의 金珍培대변인은 20일 성명을발표、「産地쌀값이 작년11월 수준보다 밑도는 5만원선으로 下迴하고있다」고 지적『秋穀수매량을 추가로 2백만섬이상 확대하고 내년1월20일까지로 잡고 있는 수매기간을 금년말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또『쌀의 수매가 끝나기도전에 영농자금 회수의 회오리바람이 불면 농민들은 감당할수없다』면서 『정부가 장려한 신품종의 쌀을 수매를 회피하는태도는 정부에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것』이라고 말했다。

資源관리 법안 民韓、심의거부
國防委 내일再論

국회國防委는 20일 상오 民正、民韓、국민등 3黨간사회의를열고 정부가 제출한 資源관리법안에 대한 심의일정을협의했으나 民韓黨측이 심의에 응할수없다고 강경한 태도를보여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22일 再論키로했다。

이날 民韓黨의 鄭鎭吉간사는『자원관리법안이 違憲的 요소와 개인재산권및 인권침해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있어 철회해야한다는것이 民韓黨의 黨論』이라면서『이법안을 심의한다하더라도 국회所管위원회가 국방위가 되기전 운영위에 먼저 회부해야하며 따라서 국방위가주관하고 공청회에 참석할수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文化센터」 겨울講座會員접수중

접수처 한국일보 6층
744-5101~3
722-4161(交)

中共 새外相에 吳學謙
國防相엔 張愛萍 임명

◇吳學謙

◇張愛萍

【北京20日AP=聯合】중공은 금년5월 국무원(內閣)의 대폭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19일 또다시 일부각료를 경질、건강이 좋지않은것으로 알려진外交部長 黃華(69)의 후임에 黨주석 胡耀邦의 측근인 現외교부 제1副部長 吳學謙(60)을 승진발령하는 한편 國防部長 耿飇(73)를 퇴진시키고 후임에 당실권자인 鄧小平의 심복으로 군현대화의 기수인부수상 張愛萍(72)을임명했다고발표했다。

중공의 관영 新華社통신은 이같은 결정이 19일 열린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常務委25차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社會漫評

못먹는것이 없군…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0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京都商銀信用組合 成樂亨이사장 外 82萬円
劇場式 유토피아·달동네 66만원
신록사주지·신도 30만원
寶星다이케스팅 21만원
仁川용현1동 開發委 10만원

▲日本京都商銀信用組合 成樂亨理事長外 役職員=日貨82만2천3백70엔
▲극장식맥주홀 유토피아 달동네 대표 배혜수씨외 임직원및 연예인一同=66만1천3백원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신록사주지스님및 신도회 一同=30만4천원
▲寶星다이케스팅工業(株) 임직원一同=21만5천5백원
▲仁川市 南區 용현1동 개발위원회 회장 이기연씨외 회원一同=10만원
▲泰和칼츠(株) 생산부사원 신성균씨=5만원
【仁川지사접수】

地平線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고 한다。秋收冬藏의 계절이 얼마나 분주한가를 말하는 속담이다。늦가을 날씨가 차지면 주부의 마음은 김장생각으로 가득찬다。한국의 겨울은 김치담그기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김치는 확실히 세계유일의 한국別味다。김치맛을 보고야 한국인의味覺을 알수 있을 것이다。우리국민의 해외진출이 늘자 김치도 조금씩 國際化의 물결을 탄듯 같다。지난해 김치수출이 1백26만달러어치에 달했다。올핸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김치수출은 주로 해외동포들을 상대로한것이겠으나、이웃 일본인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우리나라를 방한한 관광객가운데 30~40%가 김치를 사간다。김포나 김해 국제공항 주변엔 전문판매업소까지 생겨났다。토산품 상점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이곳에 김치를 공급하는 「공장」도 여러곳 있다고 전해진다。수출시장의 규모는 중동이 大宗이나 미국과 일본도 가볍게 볼수없을 만큼 비중이 커졌다。▼한국을 자주 다녀간 일본여성들은 자기집에서 재일동포나 한국인 친지를 불러 김치담그는법을 배우는일이 늘어났다고 한다。그들이 감탄하는것은 마술사처럼 느껴지는 調理솜씨다。양념을 알맞게 섞는 솜씨를 쉽게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일것이다。대강…적당히…조절하는 양념의 분량은 경험이 아니고는 알수 없다。김치맛은 통조림음식처럼 計量의 미각이 아닌 전통과 체험의 미각이다。지역과 주부의 손길에 따라 그맛이 모두 독특하다。▼민속이나 생활풍속은 正史와는 달리 다락방에 숨겨져있거나 안방에서 손과 입으로 전수된다。김치도 그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 말할수는 없다。대강 삼국시대로 어림잡고、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고추가 도입되고나서 오늘의 맛으로 다듬어진것으로 추측될뿐이다。종류도 다양해졌다。지방마다 特味가 있고 무우·배추만이재료의전부는 아니다。백김치、석류김치 고들빼기、해물김치、알타리 동치미、깻잎김치、호박잎김치등등…。▼겨울채비를재촉하는 김장시장이 한창 붐비는 요즈음 김장값은 풍작이라니 주부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것이다。김장의 適期는 이달하순께로 꼽는다。김치맛은 통조림의 김치보다 여전하다。김장독안에서 꺼내먹는 싱싱한 무우·배추가 더 감칠맛이 난다。주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공장김치」는 아무래도 한국의 맛을 잃어가는듯한 허전함을 안겨준다。

한국일보
우리의建전한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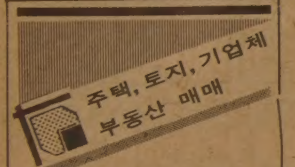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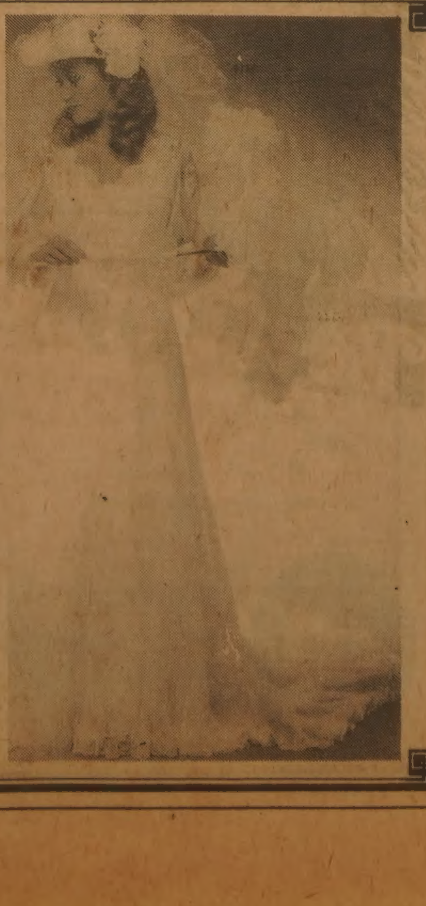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가조
교환매매
▲ 모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윈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아침 한때

千寬宇 〈史學者·本社고문〉

15年만의 日本瞥見

옛과 現代 조화가꾸는 智慧는 배울점도

A兄, 안녕하시지요. 나는 그동안 東京·大阪을 1주일남짓 돌고 며칠전에 돌아왔읍니다. 시체말투로 왕년에 일본 안가본사람 있나. 더구나 1주일남짓의 走馬看山에 무엇을 보았다고 正色을 하겠읍니까만, 나로서는 15, 16년만의 나들이어서 그 時間差가 흥미로왔읍니다. 東京의 知人한분이 『오랜만에 와본 인상이 어떻소』하고 묻기에 『전에 가끔 왔을때는 한국과 일본의 差異가 자꾸 눈에띄더니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사이에 비슷한것이 더 눈에 띄는것 같습니다』했지요. 大凡해져서 그렇까라고 추켜주기에, 나는 觀察力이 무디어져서 그런가 보다고 웃었읍니다. 謙辭가 아니라 정말 그랬던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이라야 속속들이 알아보고 한말은 물론 아닙니다. 東京·大阪의 큰길거리나 그 近郊의 풍경, 호텔방에서 들여다본 TV화면, 이런것이 서울이나 서울근교와 그리 달라보이지 않아서 무심코 그런대답이 나온듯 합니다. 그게 近代化라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차린 택시운전기사가 『한국이 조금 있으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지요』하기에 『엄살 펼치 말아요』하려다가 「엄살」이라는 일본말이 떠오르지 않아 『뭐 그렇지도 않아요』하고 얼버무렸읍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줄 알면서도 15, 6년전같으면 일본에서 이런 會話가 오고 갔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그 근대화에 문제점도 많았고 취약점도 많았지요. 지금도 적지 않겠지요. 더구나 지난 15, 6년동안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욱 그 발걸음이 빨랐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도 外樣으로는 이만큼 달라졌구나 하는 실감이었읍니다.

「비슷한 것」이 많아져 보인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先進쪽으로 따라붙었다는 뜻에서는 좋은데 또하나 씁쓸한 제가 있다는 느낌이 스쳤읍니다. 가령 市井의 보통사람의 옷차림이 우리와 많이 닮은것도 인상적이 었읍니다. 우리도 이제는 옷 事情이 크게 좋아진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옷趣向마저 이렇게 비슷한 것일까요.

近者의 歐美풍조의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또 우리의 근대화가 세계각국의 좋은 것은 모두 모델로 해서 진행되어 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델가운데 약간은 지나칠정도의 比重이 일본쪽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어디서들여온들 탓할 것이 있겠읍니까만, 그저 손쉽게 들여온수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安易하지 않은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 ×

A兄, 이번은 所關事에 쫓겨 여유있게 구경도 못했기에 大阪서 겨우 하루를 더 묵어 近郊의 史蹟 명군데를 強行軍해 보았읍니다. 자연히 日本色이 진한데를 골라서 찾아간 셈이지요.

사까이 (堺)에 있는 仁德陵은 피라미트보다도 큰 세계최대의 분묘로 이름이 있는데다가 그 前方後円墳이란는 양식의 원형이 우리 羅州 潘南에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해서 전부터 별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入口의 문이 잠겨있고 1년에 두세번 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실패담을 왜 꺼내는고 하니 그곳 管理事務所의 말이 재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본대도 잘 모르실겁니다. 全貌를 알려거든 地圖나 航空寫眞을 본듯이 빠르지요』하기는 그렇겠더군요. 원체 덩어리가 크니 말입니다.

被葬者가 고구려인이니 일본 왕족이니해서 근래 유명해진 高松古墳을 찾아가서 또하나 비슷한 일을 당했지요. 고분은 온도·습도의 조절을위해 내부가 閉鎖되어 있는것은 알고 갔었읍니다만 내가 이곳을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고분이 있는 아스까 (明日香혹은 飛鳥)란는 고장이 일본 古代國家 형성기의 요람지일뿐 아니라, 아직 분명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대로 韓半島系 이주민의 활동이 대단했던 곳이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낮익혔던 이지방 地圖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王城이라는 藤原京址에서 아스까에 걸치는 一帶의 지도였던 거지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 그야말로 항공사진으로나 보아야 전모를 알수 있을만큼 넓었읍니다. 鐵柵로도 서너 정거장이나 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나 항공사진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발로 가본곳인데 現地를 가보니 지도나 항공사진에 기댈 수밖에 없더라는 기묘한 교훈을 하나 얻은셈이라고 苦笑를 했읍니다. 어찌 古蹟만의 일이겠읍니까. 세상 만사,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 아닐까요.

× ×

A兄, 아스까라는 곳은 우리 面事務所에 해당하는 「村役場」이 있는 농촌이었읍니다. 일본 농촌 어디가나 대게 그렇듯이 여기도 소복소복 울창한 숲사이로 탁탁해 보이는 농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그 사이로 여기저기 적지 않은 名所들이 널려 있는데, 大阪서 知人의 호의로 얻어탄 車가 어쩌다가 길을 잘못 잡아들어, 대여섯집 씩 되는 小聚落 두세군데를 빠져 지나가게 되었읍니다.

일본 재래식 2층집에, 저의 집집마다 마당에는 小型트럭 한두 대가 보였읍니다. 더 놀라왔던 것은, 취락과 취락 사이 좁은 길이 모두 鋪裝이 되어있는 일이었읍니다. 속으로 『어이쿠』했어요. 일본의 底力이 이런 것이로구나, 어느 운전기사의 「엄살」과는 달리 우리가 따라가자면 한참 걸리겠다 했읍니다.

× ×

A兄, 재래식 2층이라니 말인데, 일본인은 大小事 간에 조금씩 붙이고 조금씩 깎고 하는 改良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이 남아나는 것이겠지요. 개량이라면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딴것을 대신 가져다 놓기로만한다면, 말로만 傳統과의 調和를 외쳐도 소용이 없는것 아닐까요.

마침 결혼시즌이라 그랬는지 내가 들었던 호텔의 예식장은 東京서도 大阪서도 賀客들의 人波가 대단했읍니다. 그중에도 여성 하객들이 일제히 일본 固有衣裳을 차려입고 나오는것이 화려하게 눈에 비쳤읍니다. 그것이 요즘도 풍습인가보지요. 서울서 같으면 치마·저고리를 일제히 입고 나오는 기회가 어떨때인가, 새삼 기억을 더듬어 보았읍니다.

大阪 서북쪽 히라까따 (枚方)라는곳에, 百濟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漢文文化를 전해준 王仁의 墓가 있읍니다. 거기도 이번에 욕심을 내서 가보았지요.

王仁公園은 쉽게 찾았읍니다. 젊은남녀들이 즐겁게 공을 치고있는 공원안의 테니스코트에서 王仁墓를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한 20분이나 물어물어서 가보니까 아파트團地한가운데에 파고다공원보다 좀 작은 墓域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것은 이 왕인묘의 내력이 의외에도 희미한 점이었읍니다. 이곳에 옛날부터 둥그런 自然石이 있어서 동네사람들이 「오니 (鬼)」墓라 불러 齒痛을 고쳐주는 神으로 섬겨왔더랍니다. 1미터 높이쯤되는 이 자연석이 지금도 숲속에 봉안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이 고장의 어느학자가 이것을 「와니 (王仁)」墓라고 주장을 하게되고 그래서 領主가 묘비를 세워 王仁墓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50미터쯤되는 같은 묘역안에 또하나의 왕인묘가 있더군요.

따지고 보면 증거가 분명치도 않은거기에 異國人의 묘를 섬김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식공원이 들어서고 해도 변함리 調和를 깨뜨리지 않고 옛날과 오늘이 共存하고 있었읍니다.

『文化란 별게 아니라 손질을 잘하는 거야』하면서 『구라파를 가보시오. 여관방의 家具 하나, 아파트의 창문 하나도 그저 두지 않고 손질을 해놓았거든』하던 어떤 이의 閑談에 一理가 있는듯도 합니다. 일본은 15, 6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 비하여 손질이 구석 구석 미치고 있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참 따라가야될 것 같았읍니다.

부산한 「豫算군살빼기」

11人小委 計數조정 들어갈 豫決·財務委 현황

○…建國이래 처음이라는 赤字예산을 두고 정부는 『깎을게 어디 있느냐』고 울상이지만 국회는 그래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군살을 빼기위해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부산하다.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예산국회는 豫決委의 部別심사로 끝나 22일부터는 計數조정이라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태세이고 實名制파동을 치르고 출범한 財務委稅法小委도 가장 어려운 고비인 法人稅소득세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금주가 최종 절충의 절정을 이룰것 같다.

지난 1주동안의 計數정밀심사를 마친 여야 의원들은 새해예산안이 『빡빡하게 짜여진 예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당초 民韓黨은 종래와같이 일반회계에서 5천6백21억원 특별회계에서 2백92억원등 총규모 5천9백14억원 「정치성 삭감 목표」를 설정했으나 「합리적 투쟁을 하자」는 大勢에 밀려 이를 사실상白紙化했다. 대신 民韓黨은 전체예산의 0.3%선인 3백억원을 삭감 목표로 내정하고 計數심사에 나섰으나 『빡빡한 예산에 여당 인색까지겹쳐 1차 조정은 72억원 삭감線에서 그쳤다』며 『막바지 計數조정때 기본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는게 金銘圭간사의 豫告.

○…民正黨측은 『지난해 1백71억원은 삭감한것이 사실이지만 與件이 작년과는 판이하다』는 특수사정을 강조하면서 『加減을해도 주어진 규모안에서해야한다는방침.

이에따라 지난 1주일간 예산增減의 「超精密 진단」을 해온 豫決委 5개 분과위는 군살빼기작전을 폈는데 이중 부처별 計數심사에서 가장큰 實績을 올린 분과위는 제5분과위 (위원장 朴權欽의원)로서 무려 53억원을 삭감.

특히 건설부는 19억9천5백만원을 빼앗기는 아픔을당했고 철도청이 9억7천99만원 교통부가 8억4천만원이 깎였다.

반면 농수산부, 보사부, 원호처, 수산청등을 다룬 제4분과위 (위원장 鄭石謨의원)은 단한푼의 삭감없이 오히려植桑지원비의 증액등을 요구하고나서 他分委소관 행정부처로부터 부러움을사기도.

제1분과위(위원장 李漢東의원)는 정무제2장관실의 사업비 1억2천3백67만원은 『이부서는 참관인명과 동시에 사업내용이 특명사항으로 지정되는곳』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같은 1분과위는 兵役사범단속비 1천8백만원을금년도 병역기피자 단속실적이 3명뿐이니 결국 1명단속에 6백만원이 책정된셈」이라는 朴寬用의원(民韓)의 지적과 『병무행정이 완벽하다는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삭감하는게 어떠한가」라는 李위원장의 종용에따라 千珠元병무청장의 快諾(?)으로 삭제됐다.

2분과위 (위원장 丁時采의원)는 내무부 문교부 문공부 소관의 시사성있는 정책사업을 놓고 막바지까지 줄다리기.

내무부의 경우 多重범죄진압비중 비상통원 대책비 3억4천7백75만원이 삭감됐고 문공부는 국민의식 개혁홍보비 9천9백77만원, 문교부는 청소년연맹지원비 2억2천1백만원이 잘려나갔다.

○…이에반해 평소 찬밥만 먹던 國史편찬위,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던 初等교원의 號俸조정, 國選변호료등이 의원들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오랜만에 빛을 보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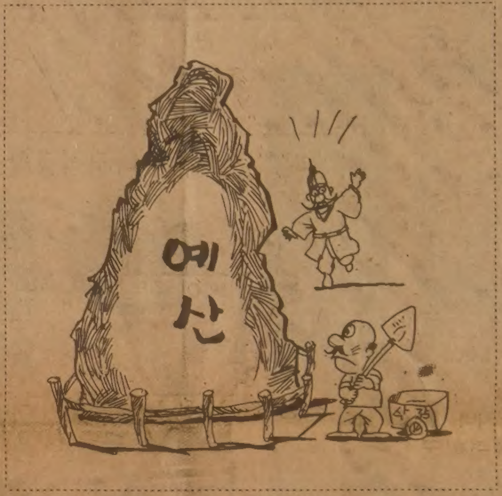
國史편찬위의 경우는 『민족史觀을 정립하라고 국민들이 앞장서 5백억원을 갹출하는 시점에 정부와 국회가 할일은 무엇인가』라는 南載熙의원 (民正)의 발의가 나오자 『우리것을 再照明·발전하기위해 書房보다못한 허름한 참고에 불과한 國史편찬위를 번듯하게 건립 하자』는 여·야의원들의 즉석 義氣로 자체예산내에서 9억6천만원을 반영.

國選변호료는 당초 대법원의 인상요청을 이재기의원이 삭감했던것을 [illegible]의원(民政)의 『가장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값진돈」, 睦堯相의원 (民韓) 에따라 대법원 예산에서 우선 增額토록 합의.

○…특히 각 분과위는 「삭감의 요인은 있으나 삭감을 留保」한 경우 「부결의」나 「小數의원」으로 행정부쪽에 경고카드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수립과정에서 객관적 자세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최선의 보좌를 하라』는 준엄한 촉구가 나왔고, 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機關誌 「평화통일」을 8面에서 4面으로 축소 발행하라고 주문.

또한 체육부는 『86·88올림픽에 대비, 유망선수의 발굴과 國威선양 기여도를 감안해 지원하라』, 외무부는 『有力인사 초청대상을 嚴選하고 영접을 검소하게 하라』, 국방부는 『軍유지비를 대폭 절감하고 전투력 증강에 투입하라』는 촉구가 나왔다.



○…과거의 財務委稅法小委가 국민의 稅부담을 어느 정도 輕減시켜주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면 이번 小委는 정부案보다 얼마나더 많은 稅金을 걷게하느냐에초점이 모아지고있는것이특징.

특히 實名制연기로 묶이족어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올리는 難解한 代役을 맡은 民正黨은 一擧手一投足이 세금과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이에따라民正黨은 爭點이 적은 부문은 정부案을 토대로 심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野黨의 공세가 치열한 부문에 있어서는 政府案을 아예참고자료정도로 삼고 그때그때 독자적인 修正의견을 제출, 야당측과 절충작업을벌이고있다

지금까지 民正黨이 제시한 修正案은 법인세율을 정부案보다 10% 上向조정하는것밖에 없지만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되는 부가세와 소득세개정안부터는 腹案을 내어놓고 對野절충을 펴는戰法을 활용할듯.

정부여당을 대표해 稅法심사의 重責을 맡은 金鍾仁小委위원장은 회의도중 수시로 李鍾贊총무 朴泰俊재무 위원장을 만나 對野절충결과를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느라 발걸음이 사뭇 바쁘다.

이에대해 야당의 자세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위해정부기능의 축소를통해서라도 歲入·歲出규모를 사감해야한다』는것.

民韓黨의 計數조정과 對與협상은 주로 黨內 財經通인 朴完奎의원을 통해서 하는 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稅法小委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朴의원은 그러나 나머지 동료의원들과 손발이 맞지않아 民韓黨은 이따금 敵前陣痛을 일으켜 戰列에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1명씩 들어있는 국민당의 趙炳鳳의원과 議政同友會의 李法鍾의원은 대부분 民韓黨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재빠르게 잡짤한 實益을 차지하는 솜씨를 보였는데 趙의원은 租減法에서 정부案이 폐지시킨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稅額공제를 黨방침대로 부활시켰고 李의원은 기부금을 損金에 算入하는 기관으로 畜協을 포함시키는 戰果를 올렸다.

○…지난16일부터 稅法案심사에 착수했던 財務委小委 활동이 거북이걸음을 하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들이稅法심사에 熱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

지난해의 稅法小委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땀을 흘렸던데 비하면 금년은 그야말로 한산한 느낌.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小委가 정상가동한시간은 불과 12시간으로 1일 평균 3시간정도.

實名制파동을 치른뒤 어렵게 稅法小委에 대해국회주변에서는 激論과 舌戰을 예상했으나 閑散한 분위기에 싱겁게 넘어가자 모두가 意外라는 표정.

「赤字편성」으로 크게는 손 못댈판

民正 法人稅인상 촛점 民韓 額數보다 體面에

그런데 이같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이유중의하나는 대다수 民韓黨小委員들이 「稅收감소」「赤字예산」등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通事情작전에 비교적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그러나 民韓黨소속위원들중 稅務전문가인 朴完奎의원과 李載根 金在映 金文元의원사이에 보조不一致내지 不協和音도 「수월한진행」에 적지않게 작용하고있다는 뒤에기도있다.

즉朴의원은每稅法案심의때마다 民韓黨의원들 상세히설명한뒤 정부안과 절충해야되는데 대체로 간단히넘어가고 있다고 못마땅해하고있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朴의원이 혼자만이 「稅法을 안다」는 양獨走하고있다고 은근히 반발해온것.

따라서 朴의원이 民韓黨案은장시간설명하자다른의원들은 『우리끼리 전략회의 나하자』고 자리를 뜨는가하면한의원은 『숫자로 따지는것은 정치인의 할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했다.

이러한 不協和音은 19일밤 租稅減免규제법의 합의했을때 朴의원이 『차라리 小委를 탈퇴하겠다』며 불통을 터뜨린는 寸劇을 낳았다.

한편 지금까지 小委위원을 개인심적 (?)을 살펴보면 民韓黨의 金文元의원이 흑백TV수상기의 세율을 내린것과 民韓黨전체의원이 관광요정에 대한 특소세의 非과세, 趙炳鳳의원 (국민)의 非코피 포트 非과세, 李法鍾의원 (議政)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축산규모를 늘렸고 朴完奎의원은 租減法에 사실상 많은 실적을 올렸다.

○…업계나 사회단체의 對국회로비가 지난해에 비해 별로 보이지않는것도 또다른 특징. 특소세법 개정때마다 많았던 지난해의경우 小委위원들의 사무실에는 경제단체와 사립학교총장단을 위시하여 피아노생산자, 관광요정 마담까지 門前成市를 이루었으나 금년에는 別無.

작년에 로비활동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던 지프제조회사 巨和는 郭正出의원 (民正)을 통해 민방위용 지프에대하 特消稅감면청원을 냈을뿐이며 사립대학총장들이 18일 국회를 방문, 3黨총무들에게 대하시설투자에 대한 稅制지원을 호소한것이 고작.

그리고 李信性교통장관이 관광호텔에 부가세 10%부과 결정을 再考해달라며 뒤늦은 로비.

【李成俊·李以春기자】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季節·人脈을 캔다

메아리

郡守

우리나라에는 1백39개의 郡이있다. 버스를 타고 지방을 다녀 보면 各邑에 들어설적마다 대개 郡廳앞을 지나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邑은 대부분 눈감고도 지도로 그릴 수 있는 것이어서 한가운데로 길게 뻗은 中央路 양쪽에 다방과 당구장 몇개를 배열하면 되게 되어있고 郡廳 또한 이 길가에 있다. 郡守는 고을의 가장 큰 어른이다. 고을이 깨끗하기라도하면 문득 원님의 얼굴이 보고싶어질때가 있다.

정말요즘 郡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慶南道廳에들러모범郡守를하나만나보겠다고했더니蔚州郡의朴龍郡守를 소개해 주었다。蔚山市內에 있는蔚州郡廳은넓게터를잡은새건물이다。2층郡守室에는행정전화、경비전화、구내전화등6대의전화가놓였다。

朴郡守는 蔚州郡에 부임한지는 11개월째지만 郡守 경력이 7년된 古參이다. 내무부에 들어온지 20여년만에 郡守가 되었다.

朴郡守는 매일 아침8시 출근을 한다. 週3회 과장과 주요계장회의를 주재하고 나머지 3회는 副郡守에게 맡긴다. 회의가 끝나면 중요한 일과는 民願人들을 만나는 일이다. 郡廳이 蔚山市에있기때문에 他郡에 있을때보다 좀 수가 적은편이지만 하루평균 10명은 찾아온다. 각面의 有志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庶民도 있다. 民願의 대부분은 다리를 놓아달라든지, 公害업소를 옮겨달라든지하는 그지방의宿願사업들이다. 못먹고 사니 도와달라는 영세민도 있고 醫療施惠를 요구하는 불구자도 있다. 전혀 郡守소관이 아닌데도 郡守한테 이야기하면 다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사람도 많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할수가 없으니까 우체국소관이든 원호처소관이든 다 들어주어야한다. 매주 한두사람정도는 郡守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다.

民願가운데 郡守가 해결해주는것은 30%가량이다. 나머지는 中央의 豫算과 의논해봐야할 일들이다.

朴郡守가 郡廳을 종일 지키고 있는것은 한달에 1주일도 안된다. 각종회의에 참석하고 출장을 다녀야 한다. 직원들의 결재서류를 일일이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직원을 믿어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시간을 내어서는 이번에는 民願이 있는곳을 직접 찾아 나선다.

12萬인구의 蔚州郡에는 12개面、1개 출장소에 2백56개의 마을이 있다. 朴郡守는 금년1월부터 9개월동안에 결처 이 마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 다녔다. 고된 일이었다. 郡廳간부들의 보고는 현장에 가봐야 실감이난다. 각마을에서는 班常會에서 의견을 모은宿願사업들을 진정한다. 동민들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져서 建議는 거의가 지역발전이나 公共의 편의를 위한것이지 私的인 청원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어느 특정인을 郡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던것도 이런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되니 동민들의 협조가 잘된다. 간혹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화를통해 타이른다. 行政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느냐 못받느냐하는것은 郡守손에 달려있다고 朴郡守는 생각한다. 마을마다에는 「우리마을에서는 꼭 이것 한가지만은 해결해주어야한다」고 동민들이 간청하는 사업이 반드시 있는데 재정문제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지 못할때 郡守로서 가장마음이 아프다. 반대로 한가지 사업을 이루고나면 아무도 생각못하는보람을 느낀다.

金聖佑 〈編輯委員〉

朴郡守는 「확인행정」을위해 자주 사업장에나가봐야하고 工團이있기때문에 어떤때는 새벽3시까지회의를 해야할때도있지만 그보다는郡守로서의 본연의업무외에 지역전반의 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것이 그에게 重壓感을 준다.

朴郡守는 法이 사회발전을 못 따라가고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나 법규가 그때그때 빨리 사회에 적응해주어야 行政이 硬直化되지않고 유연해질수있다는 의견이다.

朴郡守가 가장 안타까와하는것은 「공부하는 郡守」의 소원을이루지 못하는것이다. 책읽을 시간이 따로 없어서 자동차안에 책을갖고다닌다.

「郡守는 자기가 대통령이다하는 생각으로 일해야한다는것이 이모범郡守의 持論이다.

【蔚山에서】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전화 : 465-8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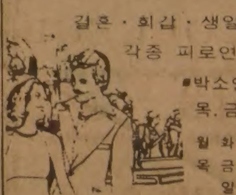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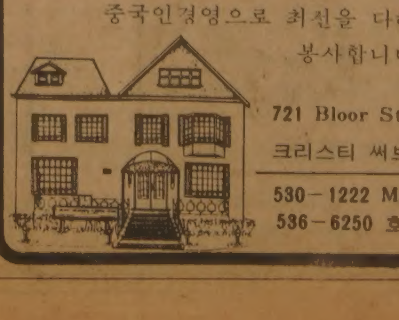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성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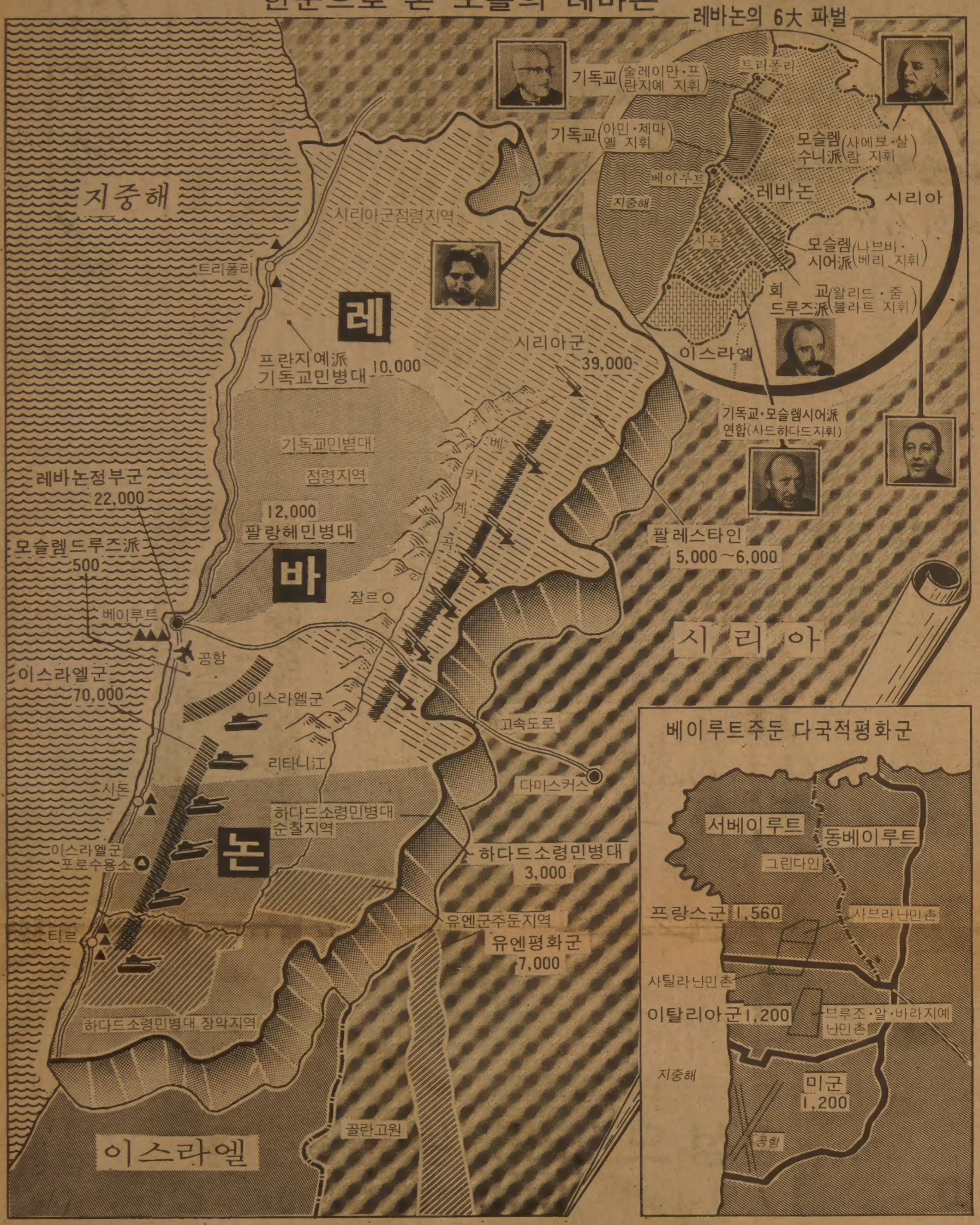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 (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초점 우리軍이 갈지도 모를 現場… 擴大地圖로 미리본다

한눈으로 본 오늘의 레바논



레바논 82년 11월 和·戰이 混在하는

首都에만 휘날리는 國旗… 안스런 「揭揚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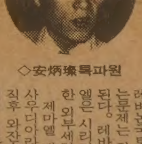
베이루트=安炳璨 특파원

11월18일은 레바논의 국기 제정기념일이다. 적색, 백색 바탕에 초록색의 히말라야삼나무를 그린 국기는 나무같이 단단하고 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

제마엘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43년의 국제재정 정신을 살려 레바논기가 1만4백52㎢의 전국토에 퍼지게하자」고 연설했다.

도로와 건물에 수많은 레바논기가 게양되었다. 자동차들도 레바논기를 펄럭였다.

에토일레광장의 국회앞에서는 이삼·코리 국방상겸교육상이 참석한 기념식이 군악대의 팡파르와 함께 열렸다.


◇安炳璨특파원

빈약한 레바논 정부군의 장갑차 행진도 있었다. 외부세력침입때문에 사실상 서부레바논만을 통치하고 있는 레바논정부가 주권과 자주의 합법적 상징으로 국기게양 캠페인을 펴는 모양은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주기까지한다.

18일의 국기제정일에 이어 22일은 독립기념일이다. 국경수간을 맞았으나 정국은 여전히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와잔수상은 이날 레이건의 중동특사인 하비브가 19일 베이루트에 도착한다고 알렸다. 이스라엘 철수에 관한 레바논-이스라엘회담을 촉진할 하비브의 임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을 레바논국토에서 몰아내게 하는문제는 위기해결의 핵심이 된다. 레바논에 있어 이스라엘은 시리아보다 한층 고약한 외부세력이다.

제마엘 대통령을 수행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직후 와잔수상은 TV인터뷰에서 「레바논은 내일이 아닌 오늘당장 이스라엘이 철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와잔수상은 오히려 시리아와 PLO의철수를 낙관하면서 「모든정보를 확인하건대 시리아와 PLO와의 협력이 기대되므로 그들의 철수에는 큰문제가 없는것으로 본다」고 했다.

턱밑엔 이-시리아軍

銃聲·굉음…「半쪽主權」마저 위협

팔레스타인난민에 대해 레바논정부는 법을준수한다면 그들의 권리와 명분을 보호하고 난민촌에 그들이 다시 주택을 건설하는것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레바논은 미국방식에 의존하는 길외에 딴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수도입구까지를 모두점령하고있고 미국이 사전에 이스라엘침공을 적극적으로 막지못한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제마엘정부는 「레바논이라는 환자한테 미국은 유일한 의사가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시바삐 주권을 회복하고 싶어 서두는 레바논의 눈에 이스라엘은 되도록 협상을지연시키고 있는 침입자 일뿐이다.

시리아의 부정적태도 때문에 철군협상은 몇달이 걸릴것이라고 말하는게 이스라엘 외상 샤미르이다.

미국의 레바논특사 드레퍼는 제마엘과 회담한후 16일다시 이스라엘로돌아갔다.

이스라엘은 철군협상을 놓고 레바논과 큰간격을 보이고 있다. 베긴은 예루살렘과베이루트에서 번갈아 철군협상을 벌이되 대표단의성격은 정치적수준으로 높여, 남부 레바논지역의 안전유지 같은 보장을 먼저 협정으로 확보하려고했다. 그러나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회담요구를거부하고 군사실무급회담을 국경지대에서 갖자는입장이다.

이스라엘군이 무조건 즉시 레바논에서 철수하라는 소리는 레바논의 명분이요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자의 간격을 좁히는 작업도 하비브와 드레퍼가 해야할작업이다.

회교구역인 베이루트 시내에서는 17일저녁 레바논정부군이 배치된후 처음으로 폭발사건이 있었다.

프랑스대사관부근 이발소에서 굉음이 울리고 기물이 부서졌으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베이루트는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레바논사람들은 여전히 사브라 캠프의 학살을 두려워한다.

좌익회교도와 우익 기독교도의 충돌은 북부항구도시 트리폴리를 한동안 뒤흔들었으나 베카로통하는 베이루트-다마스커스도로주변 산간의 싸움은 태풍의 눈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산간지대의 위기」라고 말한다. 베이루트동쪽15㎞ 떨어진 알레이 마을에서부터 베카로 가는 길은 고지이다.

알레이·쵸프 일대에서는 산간회교도인 드루즈족의 진보사회당민병대와 기독교팔랑헤민병대사이에 무력충돌이 한달째 지속적으로 폭발하고 따라서 이스라엘기습공격이 감행된다.

충돌이 일어나면 이스라엘군이 증파되어 통행금지를선포하고 좌익민병대를 추적하여 사태를 진압한다.

드루즈족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팔랑헤에 적대감을 보이는 진보사회당은 왈리드·줌블라트가 이끌고있는 세력이다. 드루즈족의 긴장은 제마엘대통령과 와잔수상이 직접중재에 나서지만 되풀이된다. 지난4일 제마엘대통령은 바브다宮에서 직접화해의 자리를 마련, 우익기독교 연합 「레바논전선」의 지도자인 전직대통령 샤문, 그의 동맹자인 팔랑헤당 수피에르·기드쥼, 드루즈진보사회당지도자 줌블라트, 드루즈족장아르슬란, 레바논군사령관 률리장군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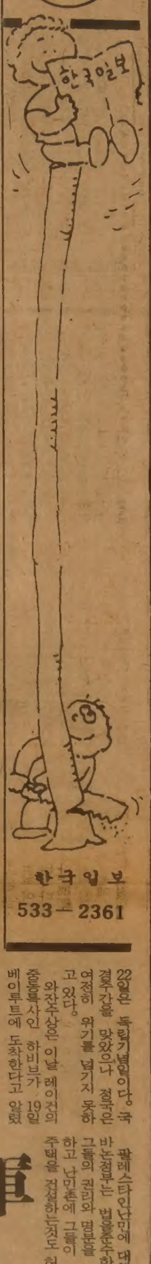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그치지 않는다.

충돌이 일어나면 드루즈족의 종교지도자 모하메드·아브·샤크라가 진보사회당의 줌블라트를 포함한 드루즈족 지도자회를 소집해서 중재를통한 종족의단합을설득한다.

17일에도 드루즈지도자들은 회동하여 바리케이드의철거, 납치자의 석방, 휴전을 바탕으로한 대화, 정규군의 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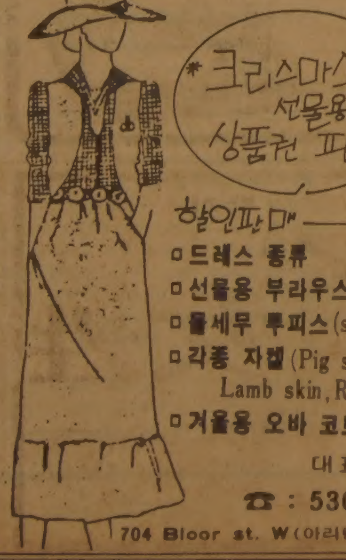
레바논의 평화, 레바논의 주권은 언제 확립될까.

地圖제작=李源存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일보 533-2361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숙녀복 전당 Mirage Bout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 드레스 종류
□ 선물용 부라우스
□ 울세무 투피스(size 6, 8, 10)
□ 각종 자켓(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 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옆)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검안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連載 한국 民族主義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⑤

題字 原谷 金基昇

「開化 쿠데타」 甲申政變

체신기념館이 엘리트魂의 發破點

內外귀빈들과 開設 파티중에 擧事

서울 安國洞로터리를 돌아 남쪽으로 그저 1·2분 걸어가다보면 오른편에 덩그러니 옛기와집 한채가 서있는것이 보인다.

듬성한 鐵책자울타리속에 『사적213호遞信기념관』이라고 썼다.

그 한쪽켠심어보이는 기와집이 韓末의 피비린내나는 改革쿠데타인 甲申정변을 터뜨린 곳.

『학자들이 띄엄띄엄 찾아오죠. 지난 7월에는 日本경응大女교수 다시로(田代和生)박사가 3백년전 기록이라면서 日本古文書일기장을 들고 왔어요. 그 기록에는 이건물이 壬亂때 일본사신이 유숙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기념관 한쪽구석에 만들어놓은 관리사무실 책임자 洪錫皓씨(38)는 국내외 학자들 이름을 몇몇대면서 옛郵政總局의 風雲史를 새기고있다고 말했다. 洪씨는 1884년 12월 쿠데타당시 郵政總局의 總辦이었으며 쿠데타 실패후 高宗어가를 끝까지 호위하다가 참살당한 洪英植의 3대孫이다.

초대 우정장관의 후손인 洪씨가 체신부와 인연을 맺은것은 1964년.

1970년 옛 郵政總局자리가 重修, 기념관으로 세워짐에따라 이곳의 관리책임자로 왔다.

1백평이 될까말까한 기념관은 지금 한 순직배달원 기념비와 기념우표를 팔고있는 이름그대로의 기념관으로 남아있지만 1백년전의 지금쯤은 역사의 發破點을 만들던 開化派 청년 엘리트들의 혼이 모였던곳이다.

1884년 4월 勅令으로 신식 우편업무를 관장할 郵政總局이 설치되고 그해 11월18일 첫 업무를 개시했던 것인데 업무개시 2주일餘만인 12월4일 이 우정국청사가 진보개혁자들의 쿠데타 거사장으로 쓰였던것.

후일 史家들은 甲申政變이라는 이름으로 이 쿠데타를 여러갈래로 쓰고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韓半島를 둘러싼 淸·日의 각축과 이들 外勢를 업은 守舊, 開化세력의 권력투쟁으로 분리, 해석돼진다.

甲申정변이 터졌던 1884년 12월은 淸의 對朝鮮勢 급증과 이를 제지하려는 日의 세력이 예리하게 맞서고 있던 시기. 국내적으로봐도 이런 淸·日양국의 무서운 알력은 정국 깊숙이까지 人物을 갈라놓고 있었다.

閔妃를 정점으로한 閔씨일파, 閔씨와 연결돼있는 趙寧夏, 尹泰駿, 韓圭稷등 소위 守舊세력들은 淸쪽에 밀착돼 있었고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朴泳孝등 해외파 진보주의자들은 日本 영사관과 긴밀한 연락관계에 있었다.

정변주동자들인 金玉均, 洪英植등은 20대에서 30대초반의 젊은 엘리트들.

金玉均은 충청도 牙山출생으로 일찌기 刑曹참의 金炳基의양자로들어와 20세에 文科에 급제, 관직에 들어갔으며 1882년 朴泳孝등과 日本 수신사로 따라가 西歐문물에 눈을뜨게됐다.

甲申사건당시 美공사관부관으로있던 조지·포크가 사건직후 美국무성에 보고한자료에 따르면 金玉均, 徐光範은1875년에 이미 日本을 비밀리방문하여 日本開化현황을 王에게보고했다고 적혀있다.

朴泳孝는 哲宗의 사위였고 인품도 중후했기때문에 쿠데타같은일에 쉽게관련될 입장은아니었으나 金玉均, 徐光範과같은 청년엘리트들과 交遊하는가운데 近代化를통한 富國强兵策을찾게됐고 특히 1882년 日本사절단을 이끌고 돌아온후에는 朝鮮에 어떤改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믿게됐다.

어쩌면 피뿌리는 쿠데타없이도 改革이 진행될번도 했다. 閔妃의 동생뻘되며 閔씨가문의 젊은총아였던 閔泳翊이 초대駐美사절단장으로 미국을돌아 西洋문물을 돌아보고 왔었기때문이다. 閔泳翊은 같은 미국사절로따라간 洪英植등과 상당한친분관계를 맺고있었으며 그들의 진보정책에도 동의했던것.

그러나 壬午군란때 죽은것으로 선포됐던 閔妃가살아서 돌아오고 淸國세력이 밀려든 1884년초쯤 閔泳翊은 軍요직인 左營使직을 맡으면서 改化派들을 멀리하게됐고 이에따라 金玉均등은 쿠데타방법을 택하게됐던것이다.

오랫동안 高宗의 외교고문역할을 했으며 名著『한국의 역사』(History of Korea)를 쓴 헐버트도 한국은 改革이 원래 급템포로 돼있는 나라라고 전제하고 개혁을일으키려면 ①무력봉기를 일으켜 ②王을 포로로잡고③반대당을 처형하는 절차가 불가피한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金玉均등은 무력봉기를 일으키고 왕을 사로잡고 반대당을 처단했다.

金玉均 朴泳孝 洪英植 徐光範등 4중심인물과 12명의 일본군사 유학생이 주동된 甲申정변은 1884년 12월 4일 郵政總局의 開設파티를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켜 閔泳翊에 刺傷을 입히고 閔台鎬 趙寧夏 尹泰駿 李祖淵 韓圭稷등 守舊派의 6거두를 죽였던것이다.

왜 하필 郵政局개설파티를 쿠데타계기로 잡았을까. 헐버트는 당초 쿠데타계획이 12월7일이었는데 擧事 기밀이 미국공사관-영국공사관을통해 守舊派의 尹泰駿에게흘러나갔으며 쿠데타지원役을 위해 仁川에 來航中이던 日本군함이 중간에잘못되어 지원을포기함으로써 갑자기 12월4일로 당겨졌다고 말했다.

金玉均이 뒷날 쓴 甲申日錄에도 처음에는 外國사절이 잘못하면 다칠지도 모르기때문에 郵政總局을 쿠데타시발지로 선택하는 것을 꺼렸으나 일이 급하게돼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정총국개설파티에는 미국공사 푸트, 영국공사 애스턴을 비롯, 18명의 내외귀빈이 와있었고 守舊派로서는 閔泳翊이 참석했다.

파티중 安洞別宮에 불이나면 무력봉기를 시작하기로했으나 別宮에 불을 뜻대로 지르지 못해 거사에 차질이일어나는듯했다.

그러나 郵政總局근처의 어떤 민가에 임시 변통으로 불을 질러 소요를 만든후 치안책임을 맡는 閔泳翊이 현장으로 제일 먼저 나가던중 매복군에 의해 칼을 맞게됐다.

당시 醫療선교사로 와있던 호레이스·알렌에 의하면 머리, 얼굴등 7군데에 심한 刺傷을 입은 閔泳翊은 27바늘의 봉합수술과 1개의 핏줄 결찰수술, 1번의 석고부착으로 천신만고끝에 살아났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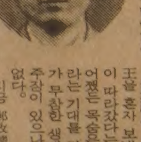
알렌은 閔泳翊등의 守舊派들에 의해 심한 선교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 이 수술이 한국선교의 계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중대고비라는 것을 각오하고 사력을 다했다고 그의 일기에 쓰고있다.

민영익의 생존은 곧 守舊派의 생존을 의미했지만 알렌의 입장에서는 한국선교의 획기적전기가 됐던 것이다.

◇開化派들이 甲申쿠데타의 시발점으로 택했던 우정총국은 1972년 重修돼 사적213호로 지정돼있다. 【李昌淳기자 찍음】

어쨌든 金玉均등은 閔泳翊이 죽은것으로 알고 입궐을 景祐宮, 安洞別宮, 昌德宮등으로 옮겨가며 3일통치를했으나 淸軍을 끌어들인 守舊派들의 반격으로 끝장이 났던것.

洪英植은 쿠데타軍을 뿌리치고 비원북쪽으로 달아나는 高宗을 끝까지호위하다가 결국 淸軍에게 참살당했고 金玉均, 朴泳孝등은 日本公使 다께조에(竹添進一郞)를따라 日本으로 망명하고 말았다.



◇洪錫皓씨

改革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계획의 섣부름과 민중내지 外勢(日本軍) 지원의 부축으로 守舊파들을 타도하지 못한것이고 日本측에서보면 밀려드는 淸軍세력을 국내개화파들을 앞세워 견제하려다 일단은 좌절된 것이었다.

정변이 3일만에 진압되자 金玉均등은 역적으로몰려 3族멸문의 화를 입게된다.

金玉均자신은 日本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뒷날 上海에서 잡혀와 목을 매이는 참형을 당했고 그 아내는 종으로 팔려갔다.

서울大교수 愼鏞廈씨는「그때 金玉均家는 滅門되고 金玉均이 日本에 있을동안 얻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日本어디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叔侄사이인 徐光範과 徐載弼은 日本으로 도망간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徐載弼은 의사가 됐다.

洪英植은 죽음을 알고도 王을 혼자 보낼수없어 기어이 따라갔다는 주장과 王이 어쨌든 목숨은 保全해줄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따라갔다가 무참한 생애를 마쳤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 郵政總局기념관을 지키고 있는 洪錫皓씨는 洪英植의 그후를 이렇게 말했다.

洪英植의 아버지 洪淳穆은 哲宗때 영의정으로 大院君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으며 大院君의 초야시절 훗날 王이 된 載晃을 도와 英植과 함께 공부를 시켜주기도 했다.

洪英植과 高宗은 말하자면 同學間이었다.

甲申정변이 실패한후 洪淳穆은 3살난 英植의 아들, 그리고 英植의 아내와 함께 자결했다. 洪英植의 시신은 그의 친구들에 의해 秘苑북쪽 北廟들에서 거두어져 청량리 어느 비탈에 묻어졌다. 고종은 洪英植의 시신을 옮겨가는 것을 묵인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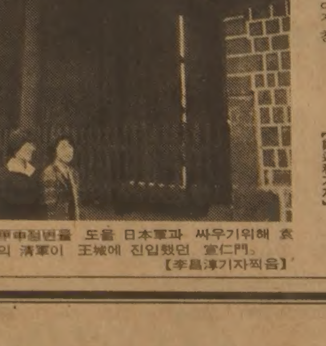
그후 洪英植의 형 洪萬植은 살아남았다가 乙巳보호조약때 나라의 悲運을 못이겨 자결했다.

기념관관리인 洪錫皓씨는 洪萬植의 손자. 洪英植은 洪萬植의 아들을 양자로 하여 代가 이어져 온 것이다.

洪領相家의 유일한 대를잇고있는 錫皓씨는 조부 洪萬植이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받았으나 代가 멀어 아무런 정부혜택은 못보고 있다고말했다.

낙후한 朝鮮을 개혁하려다 피를 뿌렸던 秘苑뒤뜰은 지금도 그때의 단풍잎은 雅趣를 드러내고 있으나 임금이 피난갔던 景祐宮이나 安洞別宮은 옛자취가 없어졌다.

『그때 甲申정변이 성공했더라도 日帝침략은 마찬가지였을것』이란 洪씨의 말처럼 金玉均의 쿠데타를 철없는 젊은 야심가들의 음모로 볼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1백년을 앞지를수 있었던 위대한 開化革命이었을지는 그저 世人의 상상의 대상이 되고 있을뿐이다. 【鄭逸和기자】



◇甲申정변을 도울 日本軍과 싸우기위해 袁世凱의 淸軍이 王城에 진입했던 宣仁門。 【李昌淳기자찍음】

내일 蘇聯邦최고회의 權力向方 드러날듯

【모스크바=聯】오는23일 열리는 蘇聯邦최고회의 (의회)와의 관례대로 22일 열릴것이 거의 확실한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앞두고 소련권력구조의 향배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관심의 촛점은 故브레즈네프가 黨서기장과 함께 겸임하고 있던 최고회의간부회의장 (국가元首)에 누가 선출되느냐 하는것과 브레즈네프및 미하일·수슬로프의 사망, 안드레이·키릴렌코의사임등으로 공백이생긴 몇몇정치국원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관한 윤곽은 통상 최고회의 하루전에 열려온 22일의 중앙위원회의에서 대충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신임 黨서기장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가 지난10일 사망한후 사실상 브레즈네프와 마찬가지로 黨서기장의 일부와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의 일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軍被襲 4명死傷 시돈서 武裝怪漢에

【베이루트AP=聯】레바논남부의 항구도시 시돈에서 19일 밤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달리던 승용차안에서 이스라엘軍승용차에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軍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軍 대변인이 밝혔다.

총격사건이 발생한지수시간후『레바논민족저항단체』라고 자처하는 한 그룹이 자기들의 소행임을 밝혔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와 WAFA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軍은 이 단체가 40km지점의 시돈港을 침공한 후 통금을 강제로 실시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및 레바논인을 체포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蘇, 중부유럽 奇襲계획수립 1週내 나토軍 焦土化

【브뤼셀=聯】소련군사지도자들은 히틀러의 2차대전초기전략을 본떠 중부유럽에서의 기습공격계획을 수립해놓고있다고 믿을만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이소식통은 기습공격의 목표가 西獨 벨기에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 배치된 나토前方방위군이라고말했다.

이 기습공격계획에 따르면 소련군은 대규모공중지원을 받는 막강한 기갑사단을 동원, 1주일 이내에 나토방위군을 초토화시키도록 되어있다.

기동성이 탁월한것으로 알려진 蘇기갑사단은 포병과 對전차무기를 보유한 기계화보병부대, 미사일발사헬리콥터및 공병부대로 구성되어있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소련군의 전략은 1~2일의 단기전만으로 나토전방부대를 포위, 고립시킴으로써 후방으로부터의 증원군파견을 불가능하게한다는 것이라고 이소식통은 말했다.

이계획은 나토군지도부가 핵무기사용승낙을 받기이전에 소련군이지상전에서 전격적인 승리를거둠으로써 나토軍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리다는착상에 근거를두고있다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다.

애틀란타총영사 宋學源 駐日本公使에 李祺周

외무부는 20일 駐애틀란타 總領事에 宋學源영사교민국장을, 駐日公使에 李祺周경제국장을 각각임명발령했다.

포루투갈 軍政종식 새憲法도 발효

【리스본聯=聯】포르투갈청년장교들이 서유럽 최장수의 독재체제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지 8년만에 30일 새헌법이 발효되고 군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포르투갈의회는 군부의 민정이양 직전에 군부를 처음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두도록 규정한 새로운 방위법을 통과시켰다.

우익정부로서는 8년간의 군정을 종식하는 이날이 포르투갈의『자유의 날』로서 환영받고 있으나 74년4월 군부거사에 참여했던 장교들과 그들의 좌익지지세력으로서는 씁쓸한 패배의 날일 뿐이다.

구독신청은 533-2361

프로필

新任中共外相 吳學謙
英語능통…亞洲문제 전문가

中共의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외상으로 승진 임명된 吳學謙은 黨대외연락부部長과 외교부副部長을 지낸 외교통이며 黨주석 胡耀邦의 심복으로 알려져있다.

금년60세로 上海출신인 吳는 중국공산주의 靑年團중앙위원회 副局長과 局長을역임했고 중공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을 지냈다.

외교부부장인 錢其琛이 東歐전문가인 반면 吳는아시아문제전문가로 평판이 나있다.

吳는 오는 11월하순 개막될 제5기全人代제5차회의에서 외상으로 공식임명될것으로 예상돼 왔다.

다년간 외국근무를 통해 국제문제에 경험을 쌓은 吳는 최근 중공당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됐다.

吳와 胡耀邦과의 교분은 中·日전쟁당시까지 거슬러올라가며 그는 또 문화혁명초기에 極左派에 의해 숙청돼서 사라지기도 했었다.

지난67년~78년 공식석상에 吳를 만나본 외교소식통들은 그가 영어에 매우 능통하며 솔직한 면을 갖고있다고 평한다.

國防部長 張愛萍
鄧의심복…實用派 직업軍人

신임 중공국방부장 張愛萍은 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과 국무원부수상을 겸임해온 직업군인출신이다.

1910년 四川省의 한 지주집안에서 태어난 張은 지난28년 공산당에 입당, 6년뒤 長征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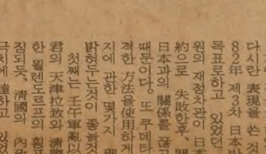
張은 對日항전과 國共內戰기간중 지방 黨위원회 서기와 淮北(회북) 軍區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49년4월에는 華東軍區해군사령관겸 정치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또 지난49년 중공정권수립이후 省軍區사령관,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 국방과학기술위원회주임, 국무원부수상을 지냈다.

張은 문화혁명당시『反黨분자』로 몰려 숙청됐다가 毛澤東사망1년전인 지난75년 공식복권돼 국방과학기술위원회주임에 임명되었다.

張愛萍은 지난77년10월 다시 인민해방군부총참모장에 임용된데 이어 2개월후에는 黨정치국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80년부터 부수상을 지내왔다.

張은 또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공최초의 SLBM(잠수함발사미사일)의 개발작업을 관장한 인물로서 鄧小平을 주축으로한 實用派에의해 군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수있는 적임자로 간주되어왔다.



開化的 民族主義 운동 日과는 相互利用 관계

甲申政變의 歷史的 意義와 敎訓

金榮作 <國民大 교수>

甲申政變을 그 表皮的인外形에서만 살피자면, 그것은 國內的으로는 守舊派勢力을 除去하고 國際的으로는 守舊派세력을 옹호하고 있던 淸國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日本의 軍事力에 依存하려다가 失敗한 쿠데타 였다고 묘사할수도 있다.

그러나 多幸히 우리 學界에서 初期 開化派에 대한 思想史的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들을「初期 근대화 운동의 기수」라고 理解하고 評價하는 見解가 通說的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甲申政變과 그 主動人物들의 民族主義的 性格에 관하여는 아직도 심심찮게 論爭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를테면, 甲申政變은 近代化운동으로서는 긍정적 評價를 받으면서 民族主義운동으로서는 제자리를 確保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다.

나름대로 理由가 있다. 그중 가장 큰 理由가 바로 開化派와 日本과의 關聯 때문이다. 더우기 日本은 後日우리나라를 植民地化 한 나라이고 보니, 그 日本에 接近했던 開化派에 대해 否定的 評價가 꼬리를 무는 것은 無理가 아닐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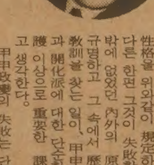
그럼에도 不拘하고 筆者는 甲申政變을 韓末民族主義運動의 三大山脈中의 하나인「開化的 民族主義운동」의 脈絡에서 파악하고 있다. 또한 金玉均등 開化派와 日本과의 關係는「非自主的·盲目的依存關係」가 아니라, 同床異夢的이긴 하나 相互利用關係로서, 兩者의 非難의 本質은 韓日 두 나라 民族主義의 相衝에 있었다고 理解하고 있다.

여기서 이같은 見解의 妥當性을 일일이 論証할 紙面上의 餘裕는 없으나, 왜 甲申政變직전에 개화파가 또 다시 日本에 접근을 하였으며—또 다시란 表現을 쓴 것은 1882年 제3차 日本방문에서 목표로하고 있었던 3백萬원의 재정차관이 日本측의 違約으로 失敗한후, 開化派는 日本과의 關係를 끊고있었기 때문이다. 또 쿠데타라는 과격한 方法을使用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몇가지 理由만은 밝혀두는것이 좋을것 같다.

첫째는 壬午軍亂以後 大院君의 天津拉致와 淸國이 파견한 묄렌도르프의 횡포에 상징되듯, 淸國의 內政干涉이 극치에 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日本以外에 政治的으로나 財政的으로나 淸國의 干涉을排除하는데 利用할 다른 友邦이 없었다는點이다. 日本으로부터의 借款에 失敗한후 金玉均은 駐日美國公使 빙햄과 商人 몰스등을 通하여 美國이나 英國등으로 부터의 借款을 試圖해 보았으나 모두 냉담하였다.

세째로 가장중요한 直接的인 이유는 安南을 둘러싼 淸·佛戰爭의 영향이었다. 1884年4月 安南문제로 淸·佛兩國間에 危機가 高潮되자 급해진 淸國은 韓國에 주둔시키고있던 兵力의半을 撤兵시켰다. 그리고 8月에는 淸·佛兩國이 交戰상태에 들어갔다.



◇金榮作교수

開化派는 이를 淸國으로부터 自主獨立을 도모하는 絶好의 機會로 간주하였던것이다. 그들은「설령 日本의 원조가 없더라도 이機會를 놓쳐서는 안된다」(甲申日錄)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日本政界와 佛蘭西間에 日佛연합군을形成하고 韓國의開化派를 利用하여 韓半島에서 對淸國 제2戰線을 形成하려던 交涉이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開化派와 日本政府의 접근을 자극한 요인이 되었음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兩者의 目的이 同床異夢이었음은 지적할 나위도 없다.

甲申政變을 通해 개화파가 의도하였던 改革의內容과 體制의 구상은, 甲申政綱과 金玉均의「甲申日錄」및 朴泳孝가 國王에게 올린「建白書」등을 通하여 엿볼수 있는바 그 총체적 성격은 立憲君主制的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運動形態는 그 指向性에 있어서, 資本主義列强에 依存하면서도 이를利用하여 근대화 (富國强兵)와 독립을 모색하였던 점에서, 日本 明治政府의立場이나 中國의 洋務운동및 變法운동과 그 歷史的 性格을 같이 하는 것이 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筆者는 한편 初期 開化派와 甲申政變의 歷史的 性格을 위와같이 規定하면서 다른 한편 그것이 失敗할 수 밖에 없었던 內外의 原因을 규명하고 그 속에서 歷史的 敎訓을 찾는 일이, 甲申政變과 開化派에 대한 단순한 辯護 이상으로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甲申政變의 失敗는 단순히 初期 開化派의 沒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前期 開化的 民族운동이 일단 좌절된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甲申政變의 對內的 失敗原因은 첫째, 開化派의 改革운동을 밑으로 부터 떠받쳐 줄 社會·經濟的 地盤이 未熟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開化派의 改革方法도 위로 부터의 改革에 치중되어 民衆의 參加에 의한 政治的擴大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째로 淸·佛戰爭이나 淸·日兩國의 태도등에관한 情勢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상과 같은 國內的 失敗원인에서 우리는 韓國民族主義의 장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역사적 敎訓을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民族主義운동은 물론, 이른바 近代化운동도 사상의 진보성이나 主觀的의도만으로는 成功할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 운동을 떠맡을 확고한 담당세력과 광범한 民衆的 기반이 없이는 民族운동도, 근대화운동도成功을 기약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훈은 근대화운동은 단순히 富國强兵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物質的 팽창이나 발전의 문제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에 대한 광범한 民衆의 참가라는 意味에서의「政治的擴散」즉 政治的 民主化의 문제와 表裏關係에 있다는 점이다.

네째 교훈은, 主觀的 의도야 어떻든, 國內與件이 지나치게 미비된 채 外勢의 힘을 빌어 試圖되는 근대화는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甲申政變을 主導한 開化派가 당면했던 客觀的 딜레머는 近代性(진보성)과 自主性을 現實的으로 兩立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다. 진보성이 없는 自主性은 盲目이며 自主性이 없는 진보성은 空虛하다. 韓國民族主義에는 아직도 이러한 어려운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大逆不道罪人」이란 이름아래 四肢가 토막난 金玉均이 韓國과 日本에 산재한 무덤속에서 만약 의식을 갖고 있다면, 以上과 같은 韓國民族主義의 과거에대한 스스로의 自省과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空想은 필자만의 것이 아닐것이다.

'88. 서울올림픽대회

올림픽표장(EMBLEM) 현상모집 공고

1. 공모작품 : '88년 서울올림픽대회 표장(EMBLEM)
2. 주 관 :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3. 공모요령
   가. 작품내용 : ◇올림픽정신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내용과 형태.
   ◇특정종교와 이념등의 표현금지
   ◇오륜마크를 사용하여 잘 조화되게 구성
   ◇휘장등 사용에 적합
   나. 응모요령 : ◇지질—백색 하드보드지를 가로로 사용
   규격—가로30cm×세로21cm
   ◇작성—용지좌측에 색채로 우측에 흑색으로 디자인
   ◇첨부—(1)색도 (2)작도법 (3)설명서
   다. 제출기간및 제출처 : 1982년11월19일—1982년12월20일(20일간)
   ◇주토론토 총영사관
4. 시 상 :
   가. 당선작1편 3백만원
   나. 가작2편 각 1백만원
5. 발 표 : 개별통지(1983년2월중순 예정)
6. 기 타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상세한 문의는 (416)598—4608로 연락바람.
7. 참고사항
   가. 올림픽표장 정의 : 엠블렘(EMBLEM)이라고도 하는 올림픽표장은 올림픽 고리(오륜)와 다른 독특한 부호나 모양을 조화시킨 디자인을 말함.
   나. '88 서울올림픽대회 기본방향 :
   ◉'88서울올림픽을 범세계가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친선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대회 적자 예방과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힘써 한국인의 근면, 성실과 슬기가 담긴 경제적인 올림픽으로 개최하며,
   ◉우리 민족의 창의적이고, 고유한 전통문화예술을 보여줌으로써
   ◉올림픽역사에 길이 모범이 되는 대회로 승화시켜 나간다.
   다.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의의 :
   ◉세계에 16번째 개최국이 되는 '88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 5천년 민족사에 처음맞는 최대의 제전이다.
   ◉화합, 참여로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저력과 평화애호 정신을 세계속에 드높이고, 2천년대를 바라보는 제2의 도약과 통일, 선진 한국으로 약진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國有地 23만평 詐取

時價12억원 관리자 꾀어 虛僞매매…訴訟

水原地檢, 변호사事務長등 10명拘束

水原지검은 20일 싯가12억원상당의 국유지 23만여평을 사취한 일당48명을 검거, 이가운데 주범인 모변호사사무실사무장 鄭一仙씨(59)등 10명을 사기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의하면 주범 鄭씨는 부동산 브로커 李敎鎬씨(46·구속·경기利川郡新屯面龍眠里313)와 짜고 지난80년12월부터 82년8월사이에 6·25당시 동기부가 소실되거나 임야대장이 미처 정리되지않은 경기驪州郡과 利川郡에있는 국유임야44필지 23만3천7백28평을 찾아내 그관리자나 경작자 46명을 꾀어 서로 사고판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법원에 소송을제기해 소유권을 불법취득한혐의다.

鄭씨는 각각 구속 또는 입건된 관리자나 경작자들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낸후 피고(관리자나 경작자)로 하여금 재판기일에 출석치않게한후 의제자백 형식을 갖추거나 법정에 출두해도 원고 鄭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토록하는 숫법을 썼다.

이들은 이같은 숫법으로 불법취득한 싯가12억상당의 국유임야가운데 4천평은 李모씨(40·서울江南區狎鷗亭洞 현대아파트)에게 평당 7천원씩 모두 2천8백만원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慶北大生 2명拘束

【大邱】大邱北部경찰서는 20일 慶北大사회대정외과 3년 權享宇군(24)과 인문대 불문과4년 李秉述양(20)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聯】

甲川황새는 毒殺됐다

科學搜査硏, 靑酸검출

밀렵꾼 철저단속키로

충남大德郡 甲川에서 죽은 황새는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일 문화재관리국의 요청으로 지난17일 죽은 황새를 부검한 결과 독극물인 청산염(차이나)을 먹고 죽은것이라고 감정결과를 통보했다.

감정내용을보면 황새의 장기에서는 모두 청산염이 검출됐는데 ▲식도 0·2PPM ▲기도 0·045 ▲위내용물 2·567 ▲폐 2·134 ▲심장 0·322 ▲간 0·187 ▲췌장 0·524 ▲담즙 1·222 ▲근육 0·069 ▲신장 1·579PPM등의 함량을 보였다.

이로써 황새는 청산염이든 먹이를 주워먹고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은것으로 확인된것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조류에 대한 치사량은 아직 알려져있지않지만 인체에 대한 치사량은 약0·39이라고 밝혔다.

이사실을 통보받은 문화재관리국은 밀렵꾼이 청산염을 넣은 먹이를 황새 서식지에 뿌려놓았을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수사를 펴기로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황새가 국제적인 천연기념물이기때문에 상세한 도래경위와 사인을 국제학회에 보고키로하고 죽은황새를 무책임하게 해부해 원형을손상시킨 慶熙大 尹茂夫교수를 문화재보호법위반(현상변경금지)혐의로 입건조사키로했다.

鄭載巴군 抗訴審서도 "무죄"

朴尙恩양 사건 有罪입증할 證據없어

변호인들 來週初 보석신청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仁荷大행정학과3년)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離九부장판사)는 20일 상오10시 鄭피고인에 대한 살인및 사체운반 절도등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검찰의항소를기각,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의 鄭피고인의 자백이 수차에걸쳐 변경하거나 번복, 혼돌리고있어 부자연스러우며 객관적사실과 맞지 않아신빙성이 없는데다 자백외에공소사실을 인정할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자백을 포함,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를 볼때 피고인이 진범이아닌가하는 의심의 여지가있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의심이가는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피고인이 진범인에 틀림없다는정도의 유죄의 확증이없다』고 전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한다는 형사재판의 전통적원칙에따라 무죄를 선고하는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자백외의 직접증거로 내세운 승용차시트커버혈흔도 피살된 朴양의 바지에 묻어있던 혈흔이 반점인데반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정도의 미세한 분말형으로 피살당시생긴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없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2심에서도 무죄가선고됐지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기때문에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한편 鄭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이 끝난직후『내주초에 鄭피고인에 대한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公休日 모두63일

2·3일 連休 각 두번씩

내년(1983년)의 공휴일수는 63일이며 3일연휴와 2일연휴가 각각 2회씩 있다.

국립천문대는 20일 내년도 역서를 발간, 내년은 단군개국 4316년 계해년 돼지의해이며 평년으로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법정공휴일(신정연휴 포함)을 합해 총공휴일수는 67일이되는데 법정공휴일중 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수는 63일이된다고 밝혔다.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연휴중 1월2일, 제헌절(7월17일), 한글날(10월9일) 크리스머스(12월25일)이다.

3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신정연휴(1월1~3일)와 10월1일 국군의날(토) 10월2일(일) 10월3일 개천절(월)의 2회이며 2일 연휴는 6월6일 현충일(월) 8월15일 광복절(월) 등 2회이다.

내년에 있을 천문현상은 일식이 2회(6월11일·12월4일) 월식이 2회(6월25일·12월20일)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볼수없다. 이중 6월11일에 있을 개기일식은 일본 남서부지방에서는 볼수있다.

原審파기 刑量높여

釜林사건 抗訴審

【釜山】釜山지법제1형사합의부 재판장 尹永五부장판사는 20일 세칭부림사건관련자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李鎬喆피고인(24·東萊區溫泉2洞99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協成財團교비 不法전용

7億원 넘어

【大邱】속보=학교법인協成교육재단(이사장 申鐘旭·59)과 산하 13개 중고교에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大邱시교위 감사반은 20일현재 각 학교에서 재단으로 불법전입돼 전용된 교비는 모두7억여원이 넘는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반은 지난18일까지 재단측에 불법전입된 학교비가 3억5천만원인것으로 확인했으나 정밀 감사를 계속한 결과 3억5천만원을 추가로 적발, 불법전입교비는모두7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것이다.

이밖에 감사반은 재단측이 호봉이 높은 상하고교 고령교사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이들을 協成中에 집중배치한 사실도 밝혀내고 고의성여부를 조사하고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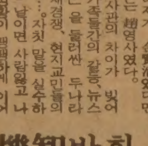
韓·日변호사協총회

韓·日변호사협회(회장 文仁龜) 제4차 총회가 한국변호사69명, 일본변호사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상오 호텔신라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주요법령의 번역사업및 재일한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사업과 양국법령비교 연구사업등이 논의됐다.

獨立기념관 紀念배지製作

推進委, 1개5백원 街頭販賣키로



◇獨立紀念館배지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安椿生)는 20일 독립기념관건립을 기념하는 배지를 제작, 판매수익금을 독립기념관건립기금에 보태기로했다.

추진위원회는 街頭판매와 직장 단체를 통한 판매등의 방법으로 이 기념배지를 5백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념배지는 環과 태극선, 수직線, 지발등을 형상화해 독립과 自尊의 민족의지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다고 추진위원회관계자는 설명했다.

前영등포區廳長 치안本部에自首

88올림픽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업자로부터 돈을 받은혐의로 수배된 전永登浦구청장 申載榮씨(50)가 20일 치안본부 수사대에 자수했다.

金선수 영결식

현지僑民등 3백명참석

【라스베이가스=金首宗기자】 金得九선수의 영결식이 20일상오5시(이하 한국시간) 라스베이가스 팜·머휴어리 장의사내의 교회에서 3백여명의 조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교민회주관으로 거행됐다.

영결식은 金龍仁목사(연합장로교회)의 개식사로 시작, 金鍾燮목사가 트럼펫으로 찬송가를 연주했다.

이어 趙東道 LA부영사가 조전을 울먹이며 낭독했으며 朴民秀 LA총영사, 애드·브라운 WBA부회장, 교민대표 徐美壽씨등이 조사를 읽었다.

鳶(연)을 날리자

民族魂 높이띄워 잃어버린 「겨울낭만」 되찾아야

"光復후 廣橋대회는 壯觀 요즈음엔 室內장식용 注文만…"

鳶만들기에 평생바친 盧裕相옹

◇鳶과함께 民族魂을… 60여년을 고집스레 연의 장인(匠人)으로 살아온 盧옹이 자신이 만든 연을 들어보이며 『이속에 민족혼이 서려있다』고 설명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겨울낭만」을 몰라. 왜 연(鳶)날리기를 배우려 하지않나?』 한평생을 전통의 연 만들기와 연날리기에 바쳐온 盧裕相옹(78·서울 西大門區 延禧洞 홍연아파트 15동101호)은 구름한점 없는 파란 겨울하늘을 바라보며 자못 짜증스럽다는 표정이다. 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장인(匠人)인 盧옹은 「자기것」을 찾자고 목소리가 높은 젊은이들이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겨울민속놀이를 외면하고 전자오락이라든가 디스코같은 「서양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게 몹시 안타까운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연날리기가 일본인이 침략해온뒤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점부터 강조한다. 일본인들은 창공 높이 연을 날리는 이 겨울민속놀이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사임을 간파,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펴갔다는 풀이였다.

그 일본사람들의 검은속을 어린나이였지만 꿰뚫어 볼수 있어 고집스럽게 연을만들어 날렸고 그러다보니 60여년의 연인생을 기록하게 됐노라고 말했다.

연 할아버지의 고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연날리기가 가장성행한 고장으로 이름난황해도 長淵. 국민학교를 갓 졸업할무렵 형을따라 다니며 연날리기에 미친 盧옹은 한때 연이 고향 하늘을 뒤덮던 어린시절을잊지못한다.

『얼레를 잡고 연을 하늘 높이 띄우면 마치 자신도 하늘을 날으는 기분』이라고설명하는 盧옹은 연을 직접 만들어 내고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연날리기대회에도 자신이 직접 만든 연을 갖고 나가 겨루기도했다.

『연에는 우리의 민족혼이 담겨있어요. 연머리에 붉은 태극도 우리의상징이 아닙니까』

盧옹이만드는 전통연은 머릿달, 꽁숫달, 허릿달(달은 연을만드는 살을뜻함)등으로 어디에나 고유한기법이 그대로 살아있다. 가볍고 강하기로 소문난다.

천만도 참대나무를쪼개 곱게 다듬은뒤 살을 만든다. 종이는 닥나무로만든 한지를쓰고 연이마에도 곱게 색을칠해 하늘에띄울 우리의얼을담는다.

얼레(연줄감는 기구)도 강원도산 칡칡나무나 벚나무를 구해 결을살려 직접 깎아 낸다.

이렇게 정성스레 3부자가 만들어내는 연은 하루에 4~5개정도에다 얼레는 주문을받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계를 꾸리기에는 어림도없다.

광복이후 한때 연날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서울廣橋 일대에서 연4일동안 연날리기대회가 열려 장관을 이룬적도 있었다고 盧옹은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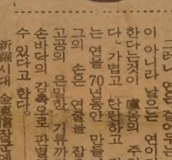
당시만해도 이대회를 위해 전기줄까지 걷어내고 교통을 차단하기도 했었다는것이다.

그후 한국일보등 언론기관이 주최가되어 연날리기대회를 열어 연의 명맥을 이어오기는 했지만 생활속에서의연날리기는 점차 쇠퇴해가고있다고 盧옹은 아쉬워했다.

따라서 연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날리기위해서가 아니라 실내장식용으로 주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은 걸어두는 연이 아니라 날으는 연이라야한다는것이 盧옹의 주장이다.

가볍고 단단하고 잘나는 연을 70년동안 만들어온 그의 손은 연줄을 잡으면 고공의 은밀한 기류까지도 손바닥의 감촉으로 판별해낼 수 있다고 한다.



대나무를 쪼개고 붙일무렵 기60여년. 盧옹의 손마디에는 굳은살이 박히고 상처도 얼룩져 있었다.

국내에서 연날리기 풍습이 쇠퇴해가는데반해 오히려 일년에 4~5차례씩은 미국, 日本등지에서 연날리기 대회 초청장이 날아든다.

그때면 언제나 자신이만든 우리 고유의 연과 얼레에다 유리가루를 입힌 연줄을갖고 나가 외국연과 겨뤄 동아줄만한 외국사람들의 연을 끊어먹어 부러움을 사기도하다는것.

新羅시대 金庾信장군에 의해 고안됐다는 우리나라의 연은 그후 崔瑩, 李舜臣장군등 명장들이 한때 군호(軍號)또는 군대를 공수하는데 사용했다는 전설을남겼고 1천2~3백년을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전역에서 겨울한철 가장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자리잡게됐다.

盧옹은 이렇게 제안한다.

『자, 올 겨울부터 남녀노소 모두 우리의 연을 날려봅시다. 높게 힘차게 연을날리며 민족의 기개를 키워 갑시다. 아이들에게 민족혼을 불어 넣어주는 연날리기 대회를 엽시다』【宋珍琯기자】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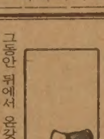
病床 매니저

駐로스앤젤레스 趙南信 총영사

機智발휘…金선수 뒷바라지 1週

『得九는 참 잘싸웠지요. 여러 미국선생님들 고맙습니다. 得九의 장기를 여기 두고 가는것은 그의 제2의 생명으로 남기고싶어서입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는 못했으나 아직 심장은 팔딱팔딱 뛰는 아들을 두었다고 인정하는 한국의 촌로 梁善女씨(65)의 어조는 정작 차분하였다. 그러나 이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 趙南信(39)의 등에 진땀이 촉촉히 배었다.



그는 金선수가 링에서 쓰러져 입원하고부터 알루미늄관속에누워 LA국제공항을 떠나기까지 일주일 그동안 뒤에서 온갖 뒤치다꺼리를 맡았던 사람. 링 위의 매니저가 金賢治였다면 병상의 매니저는 趙영사였다.

동서양의 생사관의 차이가 빚어낸 병원측과 가족들간의 갈등, 뉴스성 높은 「사건」을 둘러싼 두나라 보도진의 취재경쟁, 현지교민들의 민감한 반응등…. 자칫 말을 실수하거나 방심하는 날이면 사람잃고 나라체면 깎일 상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일을 잘 해주었다. 1m82cm의 장신과 매끄러운 영어솜씨, 그리고 상황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센스가 밑천이었을 것이다. 한국기자들에게는 물론 병원측과 미국의 보도진, 그리고 관련단체들에게는 언제나 그가 「입」이 되었다.

사망인정서에 가족이 서명할때는 그의 기지로 자칫 어색해질뻔 했던 장면을 피했다. 趙영사는 미리 인주를 준비했고 梁씨가 사인을할 차례가되자 『양해를 구한다. 한국에서는 서명대신 지장을 찍는 것을 더 신뢰한다. 梁씨도 그러기를 바라고있다』고 판사와 주치의에게 말했다. 물론 그들은 수락했다. 익숙한 솜씨로 사인을 할수 없는 梁씨는 체면을 살릴수 있었고 분위기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趙영사의 뛰어난 외교감각은 그의 경력이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병아리외교관시절을 월남에서 보냈고 東京주재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경력이 길고 화려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가장 바쁘고 중요한일을 열심히 해온 것이 「뒷바라지」의 솜씨를 길러 주었을 것이다.

월남이 패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지에 남아 한계상황에서의 인간의 본성을 체험했던 그는『세상에서 뾰족하게 잘난 사람은 없다. 보잘것 없는 인물이라고 손가락질받는 사람에게도 본받을만한 구석은 있는법』이라고 나이답잖은 인생경륜을 털어 놓는다.

金선수의 유해를 태운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趙영사의 얼굴에는 큰일을 벗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우수의 빛이 서렸다.

【로스앤젤레스=金首宗기자】

교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가 한인전용 양로원건립을 위하여 모금을 시작한 이래 교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월2일 써니부룩공원에서 있었던 워커톤대회에 참여해주신 교민들, 스폰서가 되셔서 금품을 회사해 주신 2,500여명의 교민과 단체들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워커톤대회의 결과는 작년모금액과 합하여 총2만5천여불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변호사및 Consultant의 자문을 받아 연방정부와 기타 관련기관에 연리2%의 양로원건립자금 융자및 무상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10월13일 갈보리장로교회(안병한목사 시무)로부터 동교회에서 양로원건립을 추진중이며, 금년봄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CMHC)에 자금지원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아울러 같은 목적의 일을 여러 단체가 하는것 보다는 두 단체가 힘을 합쳐하자는 제안이 있어 10월15일및 22일 대표자회의를 가졌읍니다.

본위원회는 온타리오정부 사회봉사성의 권고와 본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본위원회의 사회기여및 신용도가 확고해지고 필요자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었을때 CMHC를 통한 자금보조 신청을 하고져 준비중에 있었음으로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서 갈보리교회와 타협하려 노력했읍니다.

(가) 쌍방이 양로원건립 계획에 관한 모든자료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검토 상호보완한다.

(나) 양로원건립기관으로 제3기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한인양로원건립재단을 한인사회에 개방하여 재조직, 그들로 하여금 양로원건립을 추진하도록 한다.

(다) 쌍방에서는 실무자를 참석시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 이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리는 한인사회로 돌린다.

불행하게도 갈보리교회는 전교민의 이익보다는 동교회의 재산권을 강조하고 (1)본위원회가 동교회에 흡수되어 동교회의 사업을 도와줄것과, (2)양로원설립후의 모든 재산권은 동교회로 귀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읍니다.

교회위원들과 타협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병한목사님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시도했고(10월25일) 수차에 걸쳐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았읍니다. 교회가 전도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양로원을 운영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한인사회에서 이미 공개적, 범교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외면하고 단독적으로 양로원을 짓겠다는 의도가 수긍이 안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체자금으로 양로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면 탓 할 수도 없고, 탓 해도 않될것이나, 교민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양로원을 짓고 그안에 교회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갈보리교회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토론토에 있는 40여 한인교회들이 교회를 갖기 위한 방편으로 너도나도 양로원건립자금 보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분렬상들은 수치스럽지 않겠읍니까?

우리가 양로원하면 올데갈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이나 들어가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이곳 양로원은 노인아파트(Senior Citizen Home)와 양로병원(Nursing Home)이 종합 운영되고 있어 우리들도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곳이고, 또 그러한 제도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인 양로원의 건립은 이질문화권속에 살고있는 우리 한인들의 미풍양속을 보전 내지 전승시킬수 있는 의무를 지녀야 하며, 또한 이민1세를 위한 한인전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단독 소유 운영할 성질이 못되므로 범교민적으로, 범교민적인 단체에 의하여 전교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양로원건립은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온 교민이 일치단결하여 한방향으로 노력할때 겨우 결실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임을 다시한번 밝히는바입니다.

교민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회장 천 중 환 드림

明知、강호 高大꺾고 첫 覇權

가을철 大學축구 李千興 2골뽑아 수훈

明知大가 대학축구 가을철 리그전에서 첫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明知大는 20일 서울운동장서 열린 올해 가을철 대학축구리그 결승전에서 李千興의 수훈에 힘입어 강호 高麗大를 2-1로 꺾고 패권을 차지했다.

明知大는 이날 전반1분李千興이 선제골을 뽑은뒤 20분에 高大 魯壽珍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조직적인플레이로 전반38분 李千興이다시 결승골을 뽑았다.

▲결승전
명지대학 2 (2-1 0-0) 1 고려대학

◇개인상 ▲최우수선수=高義錫(명지) ▲최다득점=白鍾哲(경희) 8골 ▲지도=柳列順(명지감독)

복싱規定 일부 재검토

멘도사WBA회장、내년2월전에

【카라카스(베네수엘라)UPI=聯】길베르토·멘도사 WBA(세계권투협회) 회장은 18일 金得九선수의 생명을앗아간 金-맨시니 대전의 종합보고를 받은뒤 일부WBA복싱규정의 개정가능성을 검토할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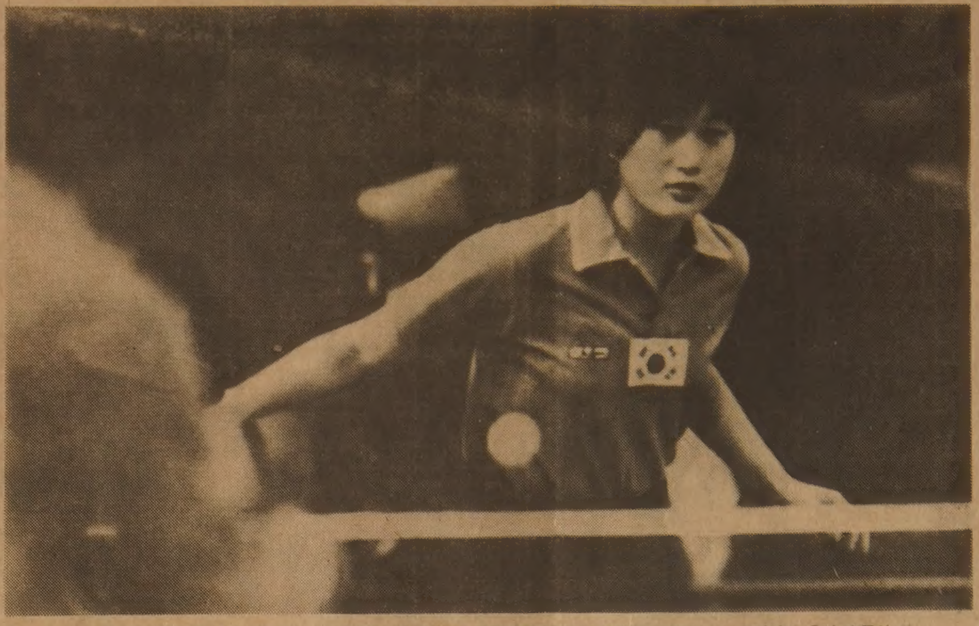
멘도사회장은 이날 UPI통신기자와의 회견에서『金-맨시니전의 비극이 일어나기전부터 WBA는 글로브의 종류 및 라운드수등에 관한 검토작업에 착수、연내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고밝히고『WBA에서 파견된 金-맨시니전의 감독자에게도 이번 시합에 관한 완벽한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멘도사회장은 글로브종류문제와 함께 각 라운드의 시간단축、라운드사이의 휴식시간연장등의 논의가 과거에도 제기되었다고 상기시키면서 복싱규정의 수정여부는 의학계의 의견을 받은후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멘도사회장은 규정수정문제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년 2월전에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男女탁구 메달향해 進軍

印度(남자)·泰國(여자)을 각각 5-0·3-0 完破



◇安海淑선수의 커트반격 한국여자탁구팀의 安海淑이 결승리그 첫단식에 출전, 泰國의 로이사와이를 커트로 반격하고 있다. 【뉴델리20日 신문공동취재단】

한국남자탁구팀은 이날 스포츠·홀에서 열린 결승리그 첫경기서 金琓澤 朴利熙 金浣이선전、홈팀 印度를 스트레이트로 꺾었다.

한국은 첫단식에서 金琓澤이 印度주전 칸네시메타를 21-18 22-20으로, 朴利熙가 찬드라·세카를 21-19 12-21 21-11로 누른뒤 金浣이 만네스·싱에게 첫세트를17-21로빼앗겼으나 제2、3세트를 21-13 21-10으로빼앗아 승기를 잡았다.

한국여자탁구팀은 약체 泰國을맞아 安海淑 梁英子 尹璟美의 활약으로 3-0으로 가볍게 이겼다.

中共과 日本 남녀탁구팀도 모두 결승리그 첫경기서 완승、한국과 나란히 1승을 올렸다. 북한여자팀도 인도네시아를 3-0으로 누르고 1승을 기록했다.

◇제2일전적

탁구 ▲여자단체전결승리그

한국 3-0 태국
安海淑 2-0 로이사
梁英子 2-0 와이
梁英子 尹璟美 2-0 핀슈완
로이사 와이 핀슈완

북한 3-0 인도네시아
중공 3-0 베트남
일본 3-1 인도

▲남자단체전 결승리그
한국 5-0 인도
金琓澤 2-0 칸네시메타
朴利熙 2-1 찬드라세카
金浣 2-1 만네스·싱
朴利熙 2-0 칸네시메타
金琓澤 2-0 만네스·싱
일본 5-0 말레이지아
중공 5-0 파키스탄

배구 ▲남자 B조 예선
한국 3 (15-1 15-0 15-2) 0 네팔

농구 ▲남자 A조 예선
중공 93-63 이라크

男子배구는 네팔 셧아웃 3-0

탁구 中共·日 남녀·北韓도 1勝

제9회 아시안게임 2일째

【뉴델리=신문 공동 취재단】한국남녀 탁구팀은 20일 8강이 겨루는 단체전 결승리그 첫경기서 印度와 泰國을 각각 5-0、3-0으로완파、메달권을 향해 쾌조의 진군을 보이고있다. 이날 한국남자 배구팀도 인드라프라스타 체육관서 벌어진 B조예선 첫경기서 姜萬守、姜斗泰、張允昌、文湧冠、李範柱、柳重卓등 베스트를 기용、네팔을 3-0으로 셧·아웃시키고 첫 승리를 기록했다. 한국은 제2·3세트서는 15-0의 퍼펙트게임을 기록、45분만에 경기를 끝냈다.

◇응원에서도 질수없다 20일 여자탁구 경기장에서 출전선수를 격려하는 鄭周永 대한체육회장(左측에서 두번째), 金相謙부회장(左측끝) 등 한국임원들。 【뉴델리20日신문공동취재단】

北韓등 모든會員國 86·88올림픽에 초청

李체육부장관 밝혀

【뉴델리=聯】한국은 국제규약과 스포츠정신을 존중하여 오는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북한을포함하여 모든회원국이 참가하도록 초청장을 각대회 3개월전에 발송할것이라고 李源京체육부장관이 20일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이곳에서 발행되는 힌두스탄·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이러한 기본방침이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안게임 특별위원회에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사마란치、92년올림픽 후보지 印度꼽아

【뉴델리=聯】사마란치IOC위원장은 20일인도가1992년하계올림픽의강력한후보가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이날 뉴델리서 가진 기자회견서『네루스타디움의 올림픽개회식은 올림픽만큼 화려했다』고 격찬하고 대회조직력은 1992년 올림픽을 개최할수있을정도로 훌륭하다고말했다.

◇21일한국경기 (한국시간)

▲농구 : 일본 (여자18시30분)
▲축구 : 북예멘 (20시)
▲하키 : 싱가포르 (여자19시)
▲탁구 : 파키스탄 (11시30분)
일본 (19시30분)
중공 (21시30분·이상남자단체)
일본 (12시) 북한 (18시)
베트남 (21시·이상여자단체)
▲테니스 : 아프가니스탄 (남자단체·14시30분)
▲궁도 : 남자90m·여자70m(이상13시)
남자70m·여자60m (이상17시30분)
▲사이클 : 100㎞도로경기 (13시30분)
▲골프 : 개인단체 (10시30분)
▲체조 : 여자단체 (20시30분)
▲역도 : 56㎏급李明洙 (18시)
▲수영 : 李蕙喆 2백m자유형 千仁泰 2백m평영 權于楨 2백m평영 李始恩 4백m혼영 (이상17시30분)
▲조정 : 예선 (13시)
▲요트 : (18시30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40)

『네 자신을 알라』이거죠. 언니가 나에게 재수 나쁜 까닭도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란, 특히 나처럼 보잘것없는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알고싶지 않을 적도, 자신으로부터 놓여나고 싶을 적도 있는 법이에요. 언니는 처음부터 나의 이런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고 헛수고 작작 하라고 비웃는 차디찬 거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오목이가 조용히 힘 주어 말했다.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앞으로는 결코 너한데 재수나쁜 여자가 안 될테니 두고보렴. 네가 밉전 안민전 유기사가 중동 가는 일을 내가 책임 지겠다. 그 사람이 중동으로 가서 돈벌이를 지금보다 낫게하는 일이 지금의 네 형편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요는 그사람이 문제지』

오목이는 수지가 자신있게 던진 미끼에 쉽게 걸려들었다. 절망때문에 오히려 떳떳하던 표정이 새로운 희망으로 비굴하게 일그러졌다.

『언니가 그래주신다면야… 언니는 그 사람을 못믿는군요? 그렇죠?』

『못믿을수 밖에. 너를 이꼴로 만든게 그사람이 중동을 못가서라면 그게 말이나 되겠니? 내가 그 사람을 중동 보내는 일이 가능하다고해서 그사람을 새사람 만드는 일까지 가능한 게 아닌게 유감이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네요. 원래 착하고 착실하고 정도 많은 남자예요. 만일 정숙한 여자만 만났더라면 지금쯤 돈도 꽤 모으고 집도사고 남부럽지않게 살았을거예요. 내가 죽일 년이에요. 한 남자를 망쳐놓았어요. 난 이보다 더 비참해져도 싸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부정한 짓이라도 했단 소리로 들리는구나』

『인재씨 아기를 배고 그 남자한테로 시집을 갔으니까요. 그리곤 여지껏 속여왔죠. 그애가 팔삭둥이라고. 난 그 남자가 안 속는 줄 알면서 속이고 그 남자는 속아 주는척 하면서 알고…우린 그동안 그일을 속고 속이는 일을 위해 아무것도 돌보지않고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를괴롭혔어요. 지옥처럼 살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요. 막내로 아들을 낳은후 그 사람도 달라졌어요. 첫애도 아들인데 그애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의심때문에 그사람은 아들하나를 더 낳기를 병적으로 바랐죠. 아기를 밸때마다 그희망으로 마음을 좀 잡는듯하다가 딸을 낳으면 다시생활이 엉망으로 망가지기를되풀이해 왔죠. 그렇게 딸을 셋 낳고야 아들을 낳았지요. 나로선 목숨 걸고 난 아들이에요. 목숨 걸고 속죄를 한셈이죠.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얻고부터 그 사람은 달라졌어요. 첫애도 위하고 딸들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자기 아들이 생기고나서야 그사람도비로소 고아를 면할수있었던거예요. 참 내가 말 안했던가요? 그사람도고아예요. 오누이의 집에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언니하고는 아마 만난적이 없을거예요. 그집이 해산되기훨씬전에취직해서 나갔으니까요.글쎄 그사람 고아근성이 얼마나 질기냐하면은요, 여지껏 식구들하고 사진한장 찍은적이없다나요. 결혼식대신사진한장만찍어서남기려해도 질색이에요. 고아원에있을때아니꼬운자선가들하고억지로 웃으면서 사진찍던생각이나서 구역질이난데요. 그렇게 질긴 고아근성이라 면하기도 남보다 몇배힘이 들었나봐요. 그이를 이해해주세요』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 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밤9시 기판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수요오후 7 : 30 12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금요저녁10 : 30 수요저녁 7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4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 : 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7 : 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9 : 00 성경공부 2 : 2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최규식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수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 : 30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주일오후 2 : 00 (영어예배) (대예배)	300 Queen's Dr. 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주일학교 3 : 00 예배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실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 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한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람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5세 여아) 전화 : 533-3545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피아노 개인지도
MARKHAM RD.
전화 : 439-4948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전화 : 535-4441 Mr.김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e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d Room 아파트, 스카보로지역
(Markham & Lawrence) 리스 83년7월까지
전화 : 438-4537(오후4시~8시) Mr. 한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광고문의 533-236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 ×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